Transforming Korean Protestant Church as a Sanctification Community:
A Critical Evaluation of Protestant Megachurches in Korea

성화공동체로서의 한국 개신교:
한국 개신교 대형교회에 대한 비평적 연구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Yongsheok Lee

May 2017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Yongsheok Lee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7

ABSTRACT

The South Korean Protestant Church as a Sanctification Community:

A Critical Evaluation of Protestant Megachurches in Korea

By

Yongsheok Lee

This study starts with an evaluation of the Korean church and the influence of Korean Protestant megachurches on Korean society. It will examine the ways Korean Protestant churches can influence Korean society in life-giving way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of megachurches. To this end, I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megachurches,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ir influences. On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mergence of megachurches lies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hurch. Korean society has been influenc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 a result, the prosperity gospel became a theological rationale on which the Korean church was built. I provide a direction for Korean megachurches for the future by focusing on John Wesley'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the essence and identity of megachurches. I hope this project can contribute to the vitality of megachurches in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helping them to recover the essence and identity of the church and the church's life-giving functions.

Keywords: megachurche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church growth

theory, prosperity theology, sanctification theology, materialism, John Wesley

Summary

Ever since the missionaries Henry Gerhard **Appenzeller** and Horace Grant Underwood arrived in Korea, the Korean church has prospered enormously. One of the manifestations of the prosperity of Korean churches is the emergence of megachurches. Pastor KwangEun Shin, in his book An Argument for Megachurches, defines the megachurch as a church where more than two thousand people attend on Sunday. According to Shin, megachurches constitute 1.7 percent of Korean churches. This is a unique phenomenon in the world. In his book, Shin uses the term megachurch. However, instead of the word megachurch, I will use the term big church to stress the specific Korean context in which big churches have influenced Korean society, theology, and culture. The Korean big church is a new form that emerged out of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was founded on church growth theory and prosperity theology. The emergence of big churches has been accompanied by two problems. First, big churches are based on a success-oriented mentality that supports materialism, the individualism of churches, competition between churches, power hunger, the idea of blessings in return for faith, and a loss of social authority. Second, Protestant churches actively seek to become big churches. Their penchant for big churches means they try to learn and imitate the big churches. In other words, the emergence of big churches has created an intrinsic problem: the transformation of churches into secular communities.

Big churches, in developing their relationships with society, have chosen

secularization as a strategy. In respect to their relationships with denominations, big churches tend to be more individualistic and nondenominational. The ministerial system of big churches is centered on the senior pastor's leadership and has very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organization of corporations. Pursuing the expansion of their churches, big churches have exposed themselves to limitless competition, materialism, and individualism. Big churches pursue power through human networks and material support. Big churches also stress to those experiencing poverty that faith will bring blessings. This blessings-for-faith teaching brings about the assumption that the amount of material possessions one has parallels the amount of faith one has. Midsize and small churches attempt to follow the path of big churches by imitating big churches' forms of faith and the messages they preach. For this reason, the problems that are manifested in big churches are also found in smaller churches.

Big Korean Protestant church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a prosperity theology that emphasizes church growth theory and blessings for faith. Therefore, the secularization of big churches has progressed, and they have lost the essence and the identity associated with being the church. As a means to restore the identity of Korean Protestant big churches, one might use minjung theology or indigenous theology, but I aim to focus on John Wesley'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sanctification theology. John Wesley'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can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the church's essence and identity from secularization. Sanctification theology provides an alternative that can sanctify individuals, the

church community, and the society.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 propose that through individual sanctification, Korean Protestant big churches can restore individual church communities within the society. I analyze the efforts of Korean Protestant big churches to overcome the blessings-for-faith idea, success-oriented thinking, and materialism, and I look at the limitations of these efforts. Big churches are non-traditional churches; however, I expect big churches can also be redeemed by John Wesley'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sanctification theology. Furthermore, I introduce a variety of forms of church that are emerging these days. I hope this study helps readers understand big churches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nd serves as a stepping-stone to recover the Korean church's essence and identity.

국문요약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를 통해 한국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후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였다. 그러한 부흥 과정을 통해 발생한 현상 중 하나가 대형교회의 출현이다. 신광은 목사는 그의 책 '메가처치 논박'에서 주일 평균 2천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로 기록하고 있다.[1]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형교회의 위상이다. 신광은 목사는 그의 책 '메가처치 논박'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존재하는 '대형교회'와 외국의 대형교회의 비교를 전제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처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자는 '메가처치'라는 용어 대신 '대형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 연구가 외국의 대형교회와의 비교연구가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내에 있는 메가처치, 즉, 대형교회의 사회적, 신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과 한국사회와 개신교회에 영향을 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대형교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로써 교회성장이론과 번영신학을 신학적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형교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반하였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서, 대형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성장제일주의를 배경으로 한 물량주의, 물

[1]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부천: 도서출판정연, 2009), 20.

질주의, 개 교회주의, 교회간의 경쟁, 권력과의 연계성, 기복신앙, 그리고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 등의 문제이다. 둘째는, 한국 개신교회 안팎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인 대형교회 지향주의이다.[2] 대형교회 지향주의는 대형교회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모델로 생각하고 모방하려는 현상이다. 결국 대형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가치가 성공제일주의와 기복신앙 등의 세속화로 인해 변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교회는 사회와 교회와의 관계성에서 실용주의라는 세속화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파와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 대형교회는 개체교회 중심적인 성향이 짙고, 대부분 탈교단적이며 탈교파적인 성격을 지닌다. 대형교회의 목회 운영방식은 담임목사중심의 리더십과 일반기업의 특성을 모방한 교회의 조직과 사역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형교회는 성공제일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형화를 추구하는 데 이를 위해 개 교회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교회들 간의 무한경쟁이라는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형교회들은 인적 자원의 동원 능력과 물질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교회와 교단 내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절대적 빈곤 혹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을 신앙으로 해결하

---

[2] 신광은 목사는 그의 책 ‘메가처치 논박’에서 메가처치화 현상이라 설명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형교회지향주의라는 용어로 대신한다.

고자 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한다. 대형교회가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개인 이기주의로써 타산적인 인간관계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물질적인 가치의 소유가 참된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 중소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대형교회지향주의는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 대형교회들이 지향하는 성장 방법과 신앙 가치관, 메시지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교회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강조한 교회성장이론과 기복신앙이 강조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성공제일주의, 물량주의와 물질주의, 부의 소유 여부가 참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민중신학과 토착화 신학을 언급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는 세속화에 물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도구가 된다. 성화신학은 개인과 신앙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사회를 성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는 개인의 성화를 통한 영적 회개 운동, 신앙공동체(교회)의 성화, 교회의 보편성과 평등성의 회복을 통해 개 교회주의와 교파주의의 극복, 교회의 사역과 사명의 회복을

통해 거룩성과 정당성의 회복, 사랑의 나눔을 통한 교회로서 사도성 회복, 그리고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나는 이 논문에서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들 중에서 기복신앙, 성장제일주의, 물량주의와 물질주의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설명하고 대형교회의 노력들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형교회는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지만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특성을 회복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신교회내에서의 새로운 교회의 흐름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한국교회 내에 존재하는 대형교회를 이해하고 대형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선교적 역할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닌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의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감사의 글

대형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형교회에 대한 보도기사를 볼 때마다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연구는 대형교회를 객관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과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한국 개신교회에 대형교회가 형성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대형교회가 한국 개신교회의 입장과 상황을 대변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한국 개신교회의 대변자가 대형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연합체가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시작한 D. Min.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적 안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권오서 감독님, 이경식 교수님과 김남중 교수님, 이 논문이 나오기 까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최은석 집사님과 송미영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와 공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 준 아내 유예림 사모와 아들 다니엘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논문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이 논문이 한국교회가 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4월

이 용 석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와 목적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목사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목사가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항에 들어와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지 올해 132년 되었다. 132년이 지난 지금, 박찬호 기자는 일요서울 2015년 9월 21일 인터넷 판에서 한국교회 6개 교단에 대한 분석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를 평가한다:

> 한국 교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2000년대부터 침체되기 시작했다. 한국 개신교회의 교인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출산율의 저하가 아니라 개신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이다. 한국 개신교회는 성장을 거쳐 침체, 쇠퇴하고 있는 듯하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대형교회가 등장했고 대형교회 역시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3]

한국교회의 성장과 쇠퇴의 시기 사이에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대형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가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급속히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에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980년대 도시를 중심으로 대형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

[3] 박찬호, *"10년간 개신교 통계분석,"* *일요서울*, August 21, 2015.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96 (Accessed May 16, 2016).

1.7%를 기록하고 있다.[4] 이러한 기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형교회의 놀라운 수치이다. 대형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유는 대형교회가 가진 특성으로 출석하는 수많은 교인과 헌금 수입 때문이다. 각종 행사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동원능력과 헌금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 금전적 동원 능력을 통해 교단과 교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결국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론, 그리고 교회가 사역하는 활동들을 대형교회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동부 이촌동의 O교회에서 주도한 목요 찬양예배나 강남의 S교회가 주도한 제자훈련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마다 찬양예배와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대형교회들은 우후죽순처럼 개체교회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만들면서 많은 목사들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는 중소형 교회의 목사나 교인들이 대형교회가 누리는 교회와 교단내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물질주의, 물량주의, 개 교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목회자 개인의 세속적 기준의 목회성공주의라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대형교회 지향주의이다.

대형교회 지향주의는 개 교회주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 교회주의는 일종의 개체교회 이기주의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들과의 연합은 해체되었고 시장경제질서를 본받아

---

[4] 신광은, *메가처치를 넘어서* (서울: 포이에마, 2015), 20. 신광은 목사가 말하는 메가처치라는 용어를 이 연구에서는 대형교회라는 용어로 대신한다.

교회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세속화된 대중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결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기복신앙으로 믿음과 신앙이 세속화되었다.

대형교회들은 교회성장이론과 번영신학을 교회 성장의 신학적인 근거로 이용하면서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개신교회 내에 대형교회의 존재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중소형교회에게 신학적인 명분을 주었다. 이 연구는 한국 개신교회에 존재하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지향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 대형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을 토대로 대형교회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성화운동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설명하며 중소형교회와 개신교의 단체와 신학대학의 연합을 통해 나타나는 교회변혁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대형교회로서 지역사회와 교단을 초월하여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난 신앙공동체성의 부분적 와해를 통해 대형교회가 가진 교회로서의 본질과 정체성, 지역사회에 대한 대형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대형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개신교회내에 존재하는 대형교회를 한국 사회와의 관계성과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대형교회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존 웨슬

리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이라는 신학적인 틀을 이용한 것은 연구자가 감리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이해하며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의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 사회의 격동기인 1960년대와 70년대에 나타난 토착화신학, 민중신학,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의 시각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교회를 이해한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5]

---

[5] '토착화 신학'은 1960년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초월적 진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상황에 적응되도록 자기를 변화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식은 그리스인들이 로고스 개념을 이용하여 메시아를 이해했던 것처럼 동양인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도(道)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종교와 기독교'(1965)》에서 한국인의 심성은 유 · 불 · 선이며 한국 무교의 원형을 풍류에서 찾았으며 복음을 풍류의 빛에서 해석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인 죄와 구원의 형식대신에 조화와 멋을 강조했다. 윤성범은 단군신화의 황인, 환웅, 환검(단군)은 하나님이며 삼신사상은 동방교회 '삼위일체론'이라는 대단히 과감한 주장을 하였다. 1970년대에 "성(誠)의 신학"이라는 토착화 신학을 주장했는데 그는 유교경전과 율곡이 말한 성(誠) 사상은 성육신과 통한다고 주장했다. 변선환은 불교와의 대화를 통해 토착화를 시도했는데 1992년 종교 다원주의를 용납했다는 이유로 목사직과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토착화 신학의 기반은 더욱 협소하게 되었다. 토착화를 복음의 토착화가 아닌 기독교의 문화의 토착화로 이해함으로써 서구교회의 전통과 신앙고백을 이식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복음을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에 대해 반론이 일어났다. 또한 민족 문화나 전통, 신화는 기독교 계시와 무관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었다. 토착화신학연구소 http://web.mts.ac.kr/~iti/ 참고
'민중신학'은 1970년대 유신치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모순으로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이 위협을 받았던 시기에 태동했는데 이때 소수의 신학자들과 양심적 그리스도인들이 민중의 고난의 현실에 눈을 뜨고 함께 투쟁하고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하여 제시한 신학이다. 서남동은 기독교의 민중전통과 한국의 민중 전통을 합류하여 민중 신학의 과제를 찾았다.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가는 해석학을 주장하여 "한(恨)의 사제(司祭)"라는 글을 통해 한국 민중의 심성에 깊이 뿌리 내린 한(恨)을 신학적 주제로 삼았다. 안병무는 "민중을 민족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라고 보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무리(오클로스)에 주목하면서 "민중"을 예수 사건의 중심으로 이해했다. 기존의 성서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주변의 오클로스가 바로 "민중"이었고 예수님의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벌이시는 민중 선교로 해석했다. 1979년 NCCK가 주최하고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가 협찬한 "국제신학심포지엄"은 한국의 민중을 주제로 한 신학에 "민중신

B.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새로운 교회형태로서 주일 평균 2천명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6]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는 한국 사회가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과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과 번영 신학을 신학적인 근거로 하여 나타난 교회이다.

2. 대형교회 지향주의

중소형교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 대형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방법과 신앙 가치관, 메시지들을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중소형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집단적인 심리적 현상이며 대형교회를 통해 목사와 교인들이 교단이나 교계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목회적 관심보다 세속적인 권력과 지위,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교회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3. 산업화

18~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때 일어난 변화들을 산업화라고 하는 데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의 형태로 변화 하게 된

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대 이후 사회민주화와 사회주의 붕괴, 시민운동의 성장으로 민중신학의 열기는 퇴조되었다. 한국신학연구소, http://www.ktsi.or.kr/ 참고

[6]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20.

다.[7] 산업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향상, 노동윤리의 확립, 각 직업의 전문화, 노동자들의 획일적 작업등이 나타나며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농촌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입되고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소비형태가 획일화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산업화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낳았으며 도시의 인구급증, 노동자계층의 소외, 아노미 현상,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형성, 범죄, 환경파괴의 문제가 나타났다.

4. 도시화

도시의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주변의 취락 내지는 지역의 변화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적 취락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도시적인 요소를 더해가는 과정, 즉 도시 발전의 과정을 포함한다.[8] 도시가 되어 가는 과정으로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에 따른 지역적 · 사회적 변화 양상을 일컫는 개념으로 인구학적으로 일정한 인구규모 내지 인구밀도를 초과한 지역이다. 도시화는 단순히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인구집중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나타난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성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성의 형성,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

---

[7] Doopedia 백과사전, "산업화의 정의, 생산활동의 분업화와 기계화로 2차·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7357 (Accessed Feburary 15, 2017).

[8] Doopedia 백과사전, "도시화의 정의,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형태이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82128 (Accessed Feburary 15, 2017).

한 심리적인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심리, 범죄의 급증과 치안확보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확보 등 도시화는 도시가 세워진 공간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를 도시화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예로 한국의 도시화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영등포, 구로, 금천지역이며 수도권 지역으로는 성남시, 광명시, 안산시 등이 이에 속한다.

5. 교회성장

'교회성장'이란 말은 맥가브란의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9] 여기서 언급하는 교회성장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대형교회의 교회성장의 요소로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 나타난 대형교회는 맥가브란(Donald McGavran)과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를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이론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교회성장을 위해서 성공제일주의에서 비롯된 개 교회주의, 물질중심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교회들 간의 무한경쟁 등을 통해 교회의 대형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잘못된 교회성장이론을 통해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잘못된 교회이해를 가지게 되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세상에서 해야 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6. 번영신학

[9] C, P.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교회성장원리: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trans. 권달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8.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을 번영의 교리 (Prosperity Doctrine), 건강과 부의 복음(Health and Wealth Gospel), 그리고 번영복음(Prosperity Gospel)이라고도 부르는데 1980년대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주면서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신앙운동으로 번영신학은 1980년대 미국에서 케논(Essek William Kenyon, 1867–1948)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케네스 해긴(Kenneth E. Hagin, 1917~2003)이 케논의 저서에 감동을 받고 번영신학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 케네드 코프란드 (Kenneth Copeland). 크레플로 달러(Creflo Dollar), 조이스 메이어(Joyce Meyer), 베니 힌(Benny Hinn), 조엘 오스틴(Joel Osteen), T. D. 제이크스 (Bishop T. D. Jakes)가 가담하면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10] 이러한 번영신학은 R. H. 슐러(Robert H. Schuller), 조엘 오스틴과 베니 힌의 한국 방문과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에 의해 한국 개신교회와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회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7. 성공제일주의

교회성장을 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교회의 세속화의 한 표현으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외적 규모나 교인수의 증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성장제일주의는 개 교회주의, 물질중심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교회들 간의 무한경쟁으로 나타난다.

---

[10] 류장현, "번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61 (2010), 7-30.

8. 개 교회주의

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데 교회 안의 인적, 물적, 시설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교회의 문제, 특히 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 교회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개체 교회시설과 프로그램 강화 등 교회 내부지향적인 일에 교회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의 단절로 지역사회와 개체교회가 단절되는 일이 벌어진다.

9. 물질주의, 물량주의

물량주의는 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수치로 측정하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11] 물질주의는 교회가 가지는 가치 중에서 '물질'(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태도이다.

10. 기복신앙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온 샤머니즘의 한 요소이며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빈부격차 심화,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신앙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다.

11. 성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듭남을 말하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

---

[11] 노치준, *한국개신교사회학*, 99.

앙이 성숙하게 하는 은총이다.[12] 다시 말하면 존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은총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의지가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거룩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으로 완성되기 위한 내재적 전제이다.

12. 평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나 교회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 모두가 교회로서의 동등한 가치와 본질을 가지고 있다.

13. 거룩성

교회와 교인이 거룩한 것은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교회의 거룩성은 참된 교인들이 주님의 거룩성에 동참함으로 인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데 이러한 변화는 성도들의 생활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 의로움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성화이다.

14. 사도성

존 웨슬리는 사도성의 문제를 '인적 계승'이 아니라 '사도적 교훈'의 계승의 시각에서 보았다.[13] 사도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며 존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를 실천하는 성화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14]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자기

---

[1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09.

[13]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265.

[14]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266.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성화를 이루어 가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

C. 청중과 대상

이 연구의 1차 연구 대상은 연구자 자신이다. 연구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출석교인 3천명이 넘는 대형교회이다. 연구자는 기획사역과 교구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연구가 나에게 대형교회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청중은 나와 함께 한 교회에서 동역하는 동료목사들이다. 동료목사들은 대형교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라는 의식으로 각기 맡겨진 목회사역을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형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대형교회에 소속된 목사로서의 바른 몸가짐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동료 목사들에게 대형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세 번째 청중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다.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은 교회에서 대형교회로,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대형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를 소망한다.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연구의 네 번째 청중은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대형교회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은 이들이다. 누구보다도 대형교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이 연구가 대형교회로 인하여 생겨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

D. 논문의 흐름

제 1 장에서는 한국 개신교회에 등장한 대형교회에 대한 문제점과 이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연구 논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특성과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대형교회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대형교회가 형성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 즉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과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교회성장이론과 번영신학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교회성장이론과 번영신학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 교회에 나타난 대형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존 웨슬리 당시의 영국사회는 청교도주의와 합리주의를 배경으로 한 계몽주의가 사상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었으며 산업혁명이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저임금으로 노동력이 착취당했던 시대였다. 종교지도자들의 설교는

냉랭한 도덕적인 내용이었고 성직이 뇌물에 의해서 매매될 정도로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영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성화신학을 통해 개인, 신앙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성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형교회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 장에서는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을 통해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의 성화, 신앙공동체(교회)의 성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보편성과 평등성의 회복, 거룩성과 정당성, 사도성의 회복과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6 장에서는 성화공동체로서의 대형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개인과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의 기관의 연합활동을 소개함으로 대형교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II.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의 특성과 영향

A. 대형교회의 특성

대형교회는 한국사회와 교회와의 관계성, 교파와 교단과의 관계성, 교회운영방식에 있어서 담임목사 중심의 독선적인 리더십, 익명성으로 인한 공동체성이 약한 신앙공동체, 이벤트 중심의 목회운영방식, 일반기업의 특성을 모방한 교회의 조직과 사역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교회이다.

첫째, 한국사회와 교회와의 관계성에서 철저하게 실용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형교회가 실용주의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진 교리나 교회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구조와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교회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15] 따라서 대형교회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사회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에 적응하면서 개인의 삶의 기반을 둔 실용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파와 교단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교파나 신학적인 전통을 따르기 보다는 개체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교회의 존재목적과 특성을 스스로 정하였기

[15] 신광은, *메가처치를 넘어서,* 20.

때문에 탈교파적(Post-Denominational)이며 신약성서가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특성을 가진 교회이다. 예를 들면 대형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단순화하며 드라마, 댄스와 같은 퍼포먼스 활동과 영상물을 통해 예배의 형식에 변화를 준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배의 순서와 내용을 예배드리는 교인에게 맞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하고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인식 때문에 예배 시간을 강조한다.

셋째, 교회 운영방식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이며 독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대형교회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담임목사의 독선적 행동에 대한 명분과 권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행동이 비합리적이거나 독선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신적 행위로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16] 결국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가진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은 교회 헌금 수입에서 오는 금전적 동원능력과 교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또 다른 교파, 교단 내에서 정치권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담임목사의 정치권력에 대한 욕구는 개 교회에 그치지 않고 대형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대형교회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성은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각 교단 내에서 정치 세력화 하여 한국교회의 여론과 방향성을 대형교회가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익명성으로 인한 공동체성이 약한 신앙공동체이다. 대형교회는 2천명이상이 출

---

[16]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139.

석하는 교회로 자신의 편이를 위해 익명성 보장 받으려는 교인이 많이 있다. 개인의 익명성은 교인들의 교회 수평이동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익명성이란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삶을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오늘날 교인들은 개인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익명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인간적인 욕망이 깔려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간섭 받고 싶지 않는 심리상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한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 대형스크린을 통해 극장과 같은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개인의 편안함이 우선된 환경 등 성도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선호한다. 또한 헌금에 대한 부담감, 교회와 이웃에 대한 희생이나 헌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거부한다. 목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한다. 결국 대형교회는 공동체성이 약화된 교회이다.

다섯째, 목회 운영에 있어서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과 같이 성도 자신의 욕망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목회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의 목회를 지향한다. 앞서 대형교회가 실용주의적 성격을 지닌 교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용주의란 실생활과 밀접한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도 있지만 성도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는 면에서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을 중요하게 만든다.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교회와 신앙, 목회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목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 개인으로 전환된 교회가

대형교회이다. 결국 대형교회는 목회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의 본질보다 성도 개인 중심으로 전환된 형태이며 교회론의 변질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공동체성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또한 이벤트 중심의 목회는 197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개런티를 지급하는 연예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 간증집회 등과 같이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대형교회가 가진 금전적인 동원 능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목회방식이며 성도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섯째, 대형교회는 일반기업의 업무조직을 모방한 교회조직과 사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에 의해 지원받는 교회다. 대형교회는 교회 조직의 전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각 사역을 담당하는 전문 사역자를 초빙하거나 양성하여 사역을 담당하는 전문 사역자 그룹과 사역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을 두어 사역을 보완하는 사역 지원그룹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역 지원그룹을 예로 들면 예배사역에 있어서 영상, 조명, 방송, 음향, 예배음악, 찬양인도, 인터넷지원 등을 담당하는 이들로 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격증 소지는 기본이고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교회가 일반기업의 조직구조와 업무를 이용하는 이유는 교인관리 및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 운영 구조의 편리성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사역의 기능에 따라 조직된 일반기업 구조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교회이다. 이러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일반기업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여 담임목사에 대한 소개, 교회의 건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인원 등의 사진이나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마케팅을 하고 있다.

결국 대형교회는 한국사회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세속화 되었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교파와 교단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교회나 신학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개체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교회이며 교회운영방식에 있어서 담임목사 중심의 독선적인 리더십은 헌금수입을 통한 금전적인 동원능력과 교인들의 인적 자원 지원 능력이 바탕을 두고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익명성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중심의 목회운영방식, 그리고 교인 관리 및 교회 운영 구조의 편이성 때문에 일반기업의 특성을 모방한 교회의 조직과 사역구조를 지닌 교회이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세속화된 교회라 할 수 있다.

B. 대형교회의 긍정적인 영향

1. 심리적 불안감, 박탈감 해소와 새로운 공동체성 마련

1960년대와 70년대 군부독재 체제 아래서 정치적인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절대적 빈곤 혹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통한 물질적 축복을 약속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소속감과 새로운 공동체성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심리적, 혹은 사회심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 대형교회 역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성장했던 기간에는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들까지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2. 신앙적인 욕구와 필요 충족

지역사회의 특성은 지역이 처한 여건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지역구성원이 누구인가에 의해 나타난다. 특히 한국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교회가 세워졌다. 수도권과 신도시에 세워진 대형교회 구성원의 성향은 소비 지향적이고 장거리를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춘 전형적인 중산층 사람들이다.

대형교회는 이런 성향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나 모임 횟수보다 더 많은 예배횟수와 다양한 예배 형식, 봉사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제공하고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개인이 직접 음악,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아웃리치를 통한 사회적 책임에 참여 등 다양한 참여 기회나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사역을 제시함으로써 독특하고 특화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적인 욕구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충족

중소형교회만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 역시 지역사회의 필요를 매우 다양하게 채우고 있다. 대형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상이나 목적이 단순히 봉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물질적인 후원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교사역이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과 지역의 다양한 필요, 신체적, 교육적, 그리고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백내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개안시술을 해주고 심장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심장병 수술을 지원하며 학교와 병원을 세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외적 활동에서 벗어나 개인과 소그룹, 그리고 각 선교회 중심의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7] 개인이 가진 달란트를 나누는 재능

[17] '아웃리치'란 종교적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속한 분야를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기부, 지역사회의 고아원, 양로원을 후원하고 지역의 복지관을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 기관 및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교회가 가진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4.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회전략에 대한 소개

대형교회는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대형교회는 조직과체계를 통해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교회의 각 부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소그룹(예배, 취미, 특기, 학습 등)이나 전문적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성서연구, 성화훈련, 영성 훈련 등)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접점과 구조를 만들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5.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개척자 역할

대형 교회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다. 비록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했지만 한국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장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의 부목사 출신이며 이들이 섬겼던 대형 교회는 목회 훈련의 장이었으며 목회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의 모델을 제시했고, 온누리교회가 찬양과 경배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성령운동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KOSTA 운동을 제시했으며 국내 교회 지도자들의

목회에 대한 재훈련을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18]

C. 대형교회의 부정적인 영향

한국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대형교회가 성장제일주의, 권력구조와의 관계성, 기복신앙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형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형교회 지향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성공제일주의

대형교회가 지향하는 성공제일주의는 교회성장을 수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교회건물의 크기나 교인 수의 증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목사 개인의 세속적인 성공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개 교회주의, 물량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교회들 간의 무한경쟁으로 나타난다.

이원규 교수는 성장제일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장 중심의 목회는 성장제일주의 가치관을 확산시켰는데 이것은 팽창주의와 업적주의와 결합되어 교회 내에 물량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조장하게 되었다. 즉, 목회의 성공 척도를 물질 혹은 물량으로 삼고 신앙의 기준도 물질적인 것과 관계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

[18] 코스타(KOSTA)는 해외 유학생과 이민청년 1.5세와 2세들을 섬기는 집회로써 자발적으로 일어난 복음주의 학생신앙운동이며 전세계 한민족 신앙공동체를 섬기는 운동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강의를 통한 지적 성장과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 지역교회와 단체들의 자발적인 연합을 통한 자비량으로 학생들을 섬기며 한인 디아스포라 다음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와 조국, 열방을 책임질 하나님의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kostaworld.org/homepage_30th/board/introduce 참고.

물적 자원(예산), 인적 자원(교인), 시설 자원(예배당과 부대 건물 등)의 규모와 동원 능력이 모범적인 교회, 성공적인 목회의 척도가 되어 버렸다. 교인들에 대하여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헌금 액수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교회가 얼마나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목회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교인들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교인의 숫자, 건물의 크기, 헌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목회자의 사례비와 승용차의 모델에 이르기까지 물량적 지표들이 종교적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성장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쉽게 물질적인 가치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 천민적 자본주의의 시장논리에 물들게 했다."고 말한다.[19]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화는 성공제일주의를 상징한다.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형교회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형교회는 주변의 작은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끌어들이며 대형화를 가속화했다. 교회의 대형화 현상은 크기의 문제를 목사 개인의 목회적 성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의 문제, 개 교회주의, 그리고 교회간의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목사 자신의 목회의 성공을 증명하는 기준을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와 같은 크기의 문제로 해석한다. 교회의 예산규모, 교인 수, 교회건물 크기 등을 중요시하고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외관상 규모를 통해 목회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평가 받는다고

[19]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전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47-48.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교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나 받는 대우, 처세가 상승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의 크기에 대한 문제는 자신의 목회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일 뿐 아니라 교계에서 대우받으려는 성공제일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둘째, 개 교회주의는 개체 교회의 시설 확장, 교인 수 증가, 교회건축과 교회재산 증식을 위해 교회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의 단절로 인해 지역사회와 개체교회가 단절되는 현상이다.[20] 개 교회주의는 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데 교회 안의 인적, 물적, 시설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교회의 문제, 특히 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 교회주의는 교회가 교단의 교리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위적 구조인 수직적 구조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교회조직을 유연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의 여건을 마련했다.[21] 개 교회주의가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한국교회가 가지는 신앙 체계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가정과 직계자손만이 복을 받기 바라는 개인주의적인 기복적인 신앙 때문이다.[22] 개 교회주의는 개교회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물질, 인력 등의 자원을 투입

---

[20] 노치준, *한국개신교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99.

[21] 조성돈, *목회패러다임, 60년의 간격과 미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58.

[22]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39.

하면서 교회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켰다.[23] 또한 개 교회주의는 교회들과의 연합, 교회가 사회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으며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 교회 내의 성도들 자신들만의 조직체로 전락시켰다.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도피처가 되어버린 교회로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성장제일주의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적인 방법론을 택한다. 대형교회는 개인의 성화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 운영과 확장, 교인 수 증가, 교회건축과 교회재산 증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교회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물적, 인적, 영적인 자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교인들뿐 아니라 작은 교회의 교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목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24] 물량주의와 물질주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세속적 가치조차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 교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공제일주의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넷째, 대형교회는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대형교회로 흡수하는 교회간의 경쟁심리를 만들었다. 교회가 대형화하는 방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대형교회들이 재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타교회의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인들이 교회간의 수평이동을 가

---

[23]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58-59.

[24] 정용암, "한국교회의 문제점 이해와 교회 개척자의 개척준비에 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3* (2006): 4.

속화 시키는 것으로 교회들 사이에서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교회재정을 기반으로 교단 내에서 재정기반이 좋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단 내 교회의 위계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25] 교회간의 무한 경쟁이 나타나는 현상에는 교인의 수평적인 교회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평적인 이동이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교인의 이동이다. 교회를 이동하는 교인은 자신의 신앙적인 관심사에 따라 교회를 옮기는 것이다. 대형교회로 수평이동을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만족감, 익명성의 확보, 보다 나은 편의를 누리기 위한 개인적인 욕구충족 때문이다. 결국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편의시설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교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중심의 신앙 이기주의를 장려하게 되며 신앙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대형교회들은 교회의 인접지역의 교인 뿐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까지도 흡수하고 있다.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제대로 길러 주지 못하며, 교회를 마케팅의 원리에 의해 운영하여 인간의 저급한 욕망에 영합하는 것이다.[26] 그리고 본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먼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본 교회에서 부목사를 파견하여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같은 시간대에 동시예배를 드림으로서 교인들이 지역의 교회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다.

---

[25] 이혁배, "한국교회의 형태와 전망, 그리고 과제," *신학사상 no. 146* (2009): 125.

[26] 노치준, *한국개신교사회학*, 34.

이처럼 교회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개체 교회는 조직과 운영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들을 집중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형교회는 물량주의, 물질주의적 목회방법론을 이용하게 되고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를 선택하라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교회들 사이에 만들어 진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기 보다 교인들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중소형교회는 교회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도태 되는 약육강식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2. 계급, 권력구조의 형성과 세습화

교단 내에서 대형교회를 이룬 담임목사는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교단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그것은 대형교회를 이룬 담임목사에 대한 영적인 존경심이기 보다는 담임목사가 교회 내에서 누리는 존경과 물질적인 지원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켰다든지 대형교회를 잘 운영해 나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갖는 권력구조와 서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회의 상황을 보면 한국 개신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는 각 교단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보장 받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를 누린다. 교회 내에서도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을 누린다.[27] 따라서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려고 하는 동기는 예수님의 영혼구원의 명령이기 보다 목사 개인이 교단 내에서나 지역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한 경우가 많다. 결국 교회의 양적 성장의 규모에 따라서 교단과 교계 내에서 지위와 권력의 형태로 계급구조가 생겨난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보장받기 때문에 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지하는 일과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게 된다

이렇게 대형교회가 갖는 권력구조는 담임목사뿐 아니라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까지 영향을 준다. 평신도 지도자격인 장로나 권사의 경우 대형교회의 장로, 권사가

---

[27]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40.

가지는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중소형 교회의 장로, 권사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형 교회의 장로나 권사인지 아니면 대형교회의 장로, 권사인지에 따라 지역교회 내에서 조차 계급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현상은 대형교회를 기반으로 한 직분자의 개인적 자부심이 개 교회주의를 고착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 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담임목사 1인 중심의 권력편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28] 담임목사 중심의 교회운영은 사실상 담임목사가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구조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담임목사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부흥 성장한 대형교회는 담임목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교회내의 각종 금전적인 지출 권한과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인 지위가 절대화된다.[29] 이런 이유로 교회의 권력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교회세습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1년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가 아들 김정식을 후임자로 정했고 2006년에는 그의 동생인 김홍도 목사가 아들 김정국을 후임자로 정했던 사건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는 대부분 개척교회에서 출발하여 대형교회로 성공을 이룬 목사들이 많다. 이들이 세습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은퇴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다. 세습화를 강조하는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

---

[28] 이진구, "개신교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당대비평* no. 12, (2000), 236.

[29] 신경규, "한국교회의 문제와 과제: 장기적 교회성장을 위하여," *개혁주의 교회성장,* no. 3 (2008): 213.

이 아들과 자손들에게 대물림 된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운영을 아들에게 세습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 교회세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으로 아들 등의 직계존속에게 물려주는 혈연적인 세습이 있으며 둘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원로목사의 권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인물에게 교회를 담당시키는 권위 세습이다. 결국 교회세습은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며 대기업의 경영권이 세습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회적 차원의 도덕성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교회의 존립까지지도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농촌이나 소도시의 가난한 교회 등에서는 아버지가 어렵게 개척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그것은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가 어렵거나 교회 차원에서 새로운 목사를 담임목사로 영입하기 어려운 교회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다.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담임목사인 아버지가 원로목사로 물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모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에 대한 예우와 후임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 운영의 한 방편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내에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교회 세습은 담임목사가 은퇴한 후에도 담임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3. 기복주의 신앙과 메시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란 기복적인 요소가 교인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신앙의 핵심이 현세와 내세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형태이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 내에서 팽배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결과로 생겨난 도시화의 배경에 그 원인이 있다. 한국 사회 안에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자극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나타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에 있다.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는 수출중심의 저임금 산업구조였다.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다수의 저임금과 기업인 소수가 경제적인 이익을 소유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나타난 소득분배 불균형의 결과이다.[30]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경제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높아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삶에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는 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만과 긴장, 즉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31] 교인들은 박탈감에 대한 보상을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면서 종교가 박탈감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다.[32]

둘째, 기복주의 신앙을 부추긴 것은 담임목사의 메시지다. 기복주의 신앙의 메시지의

---

[30]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236.

[31]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20.

[32]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236.

예는 복을 받기 위한 행동지침과 같은 메시지, 담임목사의 필요에 따른 메시지, 인기위주의 자기 과시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로서의 성화에 메시지의 부재 등이다.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교회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기복주의적 메시지는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이다. 조용기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죽은 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 삶의 축복이라고 주장한다. 조용기 목사는 '범사에 잘 되고' 하는 성경 구절은 '개인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며 '강건하다'는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한다.[33] 이렇게 실질적인 '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물질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기복주의는 물질주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교회의 성공 척도, 교인의 신앙 척도를 물질적 용어로 설명하였다.[34] 교회가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갈망하면서 부흥과 영향력을 조직원 수와 헌금액수와 같이 물량적으로 측정했다. 교회에서 설교, 교회, 의례, 태도 등에서 교회의 물질지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담임목사들의 맹목적인 신앙의 요구이다. 기복주의 신앙은 '목회자를 잘 섬기고 순종하면 가정과 사업이 축복을 받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을 회중들에게 심어주었다. 특히 교회건축과 연계될 경우 교회건축을 할 때 헌금을 많이 하면 현세와 내세까지 복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상당한 수의 교회가 대규모 교회건축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기복적인 신앙을 이용한 것이다. 기복주의 신앙은 한국 개신교 교회라는 전체의 틀에서 볼

---

[33] 서광선,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서울: 대화출판사 1981), 57.

[34]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240.

때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어느 한 개체교회와 개체교회의 담임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개 교회주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넷째,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다. 기복주의는 공동체보다 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며 개인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앙이 단지 개인의 복에만 집착할 때 기독교적 신앙이라기보다는 무교적 신앙에 가까워진다. 김흥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복주의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부각되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요청은 경시된다. 물론 병들고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잔인한 일이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요청이 경시되는 메시지는 교인들의 윤리적 삶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전쟁터와 같은 사회상황에 잘 견딜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나 196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모순에 윤리적 비판을 가할 수가 없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신도 개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좋으신 예수님'이 더 강조되었다."[35] 기복주의 신앙의 확대는 교회가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찾기에 급급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교회 구성원과 헌금액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모든 것을 물질

[35] 김흥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147.

로 측정하기 시작했다.[36] 결국 교회 구성원의 신앙은 물질적 축복을 비는 신앙으로 변질된다. 기복주의 신앙은 타인은 경쟁의 대상이며 자신의 경제적인 소득의 불균형을 신앙을 통해 해결하려는 개인 이기주의이다. 타산적인 인간관계, 물질적 가치의 우선,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의 소유가 참된 신앙의 측정 기준이 된다. '기복주의 신앙'은 '뻥튀기 축복의 시대', '축복의 인스턴트 시대'를 만들었다.[37]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과 삶이 개별화되고 분리되는 모습이다. 결국 교회는 삶을 풍요롭게 수단으로 전락했다.[38] 교인과 교인을 경쟁의 관계로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물질적인 가치로 과시하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 경제적인 소득의 불균형과 박탈감에 삶에 시달리는 산업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을 통해 보상 심리를 자극해서 감정적 열기로 채워지는 갖가지 집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결과 교회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인 위안과 희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대형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결국 기복적인 신앙은 당시 사회의 경제적 소득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만과 박탈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보상심리였고 이것을 교회가 이용하면서 대형교회가 되었다. 기복주의 신앙은 대형교회가 되려는 중소형교회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목회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대형교회 지향주의

'대형교회 지향주의'이란 중소형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형교회가 되기 위

---

[36] 박영신,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7), 115-16.

[37] 이요한, "새롭게 본 한국교회 성장요인 분석," *목회와 신학, no. 7* (1993): 54-55.

[38] 이중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탐구* , no. 2. (1994): 116.

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틀어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중소형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첫째, 중소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심리적 현상이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회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시작된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대형교회가 되면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어떤 직위와 권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 결국 목회적 관심보다 사회적인 권력과 감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목회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동경하며 지향하게 된다.

둘째, 교회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중소형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가 작다는 것을 '옳지 못한 교회', '뭔가 잘못된 교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를 통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뿐 아니라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성품의 문제로서 게으름과 나태함, 열심이나 열정이 없다는 증거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 목회자 개인의 생계에 어려움까지도 겪게 된다.[39] 또한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에 대한 교회의 평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로 평가되지만 작은 교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교회로 생각하게 된다. 교회성

---

[39]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86.

장학자인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엡 4:16)고 말했다.[40] 이 말은 대형교회를 옹호하는 말로서 작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교회의 크기가 교회와 목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목회자의 생계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지향하게 된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의 문제이다. 교단 차원에서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한국 개신교회 내에 거의 없다. 자립하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자녀교육이나 생계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모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목회자 가정의 생계와 자녀양육 때문이다.

‘교회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가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잃었다는 것이며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41] 이것은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조직체가 커지면 기존의 내적인 구조, 체제, 정신과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성장이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는 현상으로 표출된다. 소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42] 대형교회는 교회가 기업으로, 담임

---

[40] 피터 와그너 et al., *숫자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를 합시다*, trans. 배응준 (서울: 나침반출판사, 1996), 34-36.

[41] 이희대, *희대의 소망* (서울: 두란노, 2007), 38-41.

[42]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94.

목사가 경영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변화, 즉 변질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과 중소형교회가 추구하는 대형교회 지향주의는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교회의 회복은 본질의 회복이며 의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D. 대형교회의 한계

1. 기복신앙의 한계

한국 개신교회에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기도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원래 기도원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다. 주로 대도시에서 벗어난 수도권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자신의 삶에서 당한 문제, 예를 들면, 금전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학과 취업, 질병, 사업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공간이 되었으며 일정기간 금식과 기도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새골 공동체, 영성 일기, 그리고 Tres Dias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성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복적 신앙에 근거한 삶이 아직도 강조되고 있다. 신앙을 통해 부귀영화를 이루려는 기복신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2. 성화 훈련의 한계

한국 개신교회 중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과 영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제자훈련이나 영성 훈련은 성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 개신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훈련의 거의 대부분이 지식의 전달 정도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성품의 변화, 삶의 태도와 방식의 변화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목적성의 부재이다. 무엇을 위한 제자훈련이며 영성 훈련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지식 전달 정도의 코스워크(Course Work)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나 사역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성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만 하는 단편적인 훈련과정이며 지속할 수 있는 연계된 성화 훈련과정이 없다. 넷째, 교인 개개인의 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교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물질주의, 물량주의의 한계

대형교회는 출석하는 교인과 이들의 헌금 수입으로 발생하는 금권과 인적 자원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교단,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사랑의 주일이나 사랑의 나눔 주간 등의 행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가진 자의 소유에서 일부를 나누는 나눔, 동정심에서 나오는 나눔, 자기 자신이 등록한 교회의 우월성에서 나오는 나눔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의식의 변화 없이 물질주의와 물

량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아니라 대량화되고 형식화된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

4. 개 교회주의의 한계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돕는다는 일은 교회의 평등성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데에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교회들 사이의 연합사역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대형교회들이 교회를 돕는 정도의 사역이지 한 교회를 여러 교회가 각기 역할을 맡거나 사역을 분담하여 세워가는 협력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전적인 힘이 있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며 개교회 중심의 사역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 교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성장제일주의의 한계

성장제일주의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헌금 수입 등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도울 수 있다는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가 정체상태에 있거나 헌금 수입이 적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립하지 못한 교회나 선교기관을 후원하는 선교 비용과 지역에 봉사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가진 자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성장제일주의는 복을 받아야 나눌 수 있다는 기복적 메시지와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교회가 세상에 선한 이웃이 되려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역들 속에는 의식의 문제가 동반된다. 많은 대형교회들의 사역 뒤에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 보다는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기복적 신앙 요소가 있으며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개교회의 성장을 이룬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목회에 대한 안목과 시각을 넓힌다는 의미보다는 물적, 인적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가진 권력 때문이다. 또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역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결실을 맺기 어렵다.

한국 개신교회는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 얻는 신앙의 참된 의미를 되찾기 시작할 때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투명성과 정당성을 통해 대형교회가 누리며 소유했던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규정과 매뉴얼을 준비하여 교회의 행정과 사역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고 권력과 기득권을 제한함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지기의 사명과 쓰임 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교회가 내려 놓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한국 사회에서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 받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Chapter Ⅲ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의 형성 배경

A. 대형교회 형성의 사회적 배경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 급성장하면서 대형교회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의 변화이다. 한국사회는 6.25 전후 남과 북의 분단과 대치상황,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에서 발생한 공동체의 상실, 정체성의 위기, 불안, 소득분배의 불균형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43] 한국의 개신교회는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는 과정에서 대형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과 맞물려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이론과 로버트 슐러를 중심으로 한 번영신학이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들에게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회안에서 대형교회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군부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요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공동체성의 상실과 기복주의 등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통해 한국 개신교회에서 대형교회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불안정

---

[43] 서광선,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95.

군부 쿠데타와 독재정치라는 정치적인 불안과 반공이데올로기는 대형교회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를 통한 정권 장악과 유신, 그리고 전두환의 군 내부 반란으로 한국정치는 독재정치가 이루어졌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북한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다.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졌다. 당시 군부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사회변혁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군부의 장기적인 집권과 절대화된 독재 권력으로 인한 정치적인 억압, 인권탄압, 관료적인 권위주의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은 사람들에게 불안심리를 자극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불안한 심리를 위로하며 위안을 주는 역할을 했다.

2. 산업화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당시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 관심사였다. 이승만 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이에 대한 불만은 4.19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주장했다. 성장주의가 사회의 주요 구성 원리로 작용한 것은 박정희 정권부터였으며, 1970년대 초에 체계화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활용되었다.[44] 군부의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한국사회는 두 가지 변화를 겪는데 첫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이며, 둘째, 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인구 이동을 낳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계자료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인 농업, 어업이 1963년 63.0%에서 90년 17.9%로 급감하였고 2차 산업인 광공업은 같은 기간 동안 8.7%에서 27.6%로 늘어났으며, 3차 산업은 28.3%에서 54.5%로 급증하였다.[45] 당시 한국의 경제개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저임금으로 만든 상품을 외국시장에 파는 수출주도형이었다.[46] 한국의 산업화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수출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바뀌었다.[47] 특히 저임금 정책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은 소득의 대부분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결과 부유층에 집중된

---

[44] **박영신**,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28.

[45]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18.

[46] 이대근,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 (파주: 나남출판사, 2005), 187.

[47] 김금수, *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서울: 풀빛, 1986), 37-38.

소득은 재벌이란 계층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였다. 반면 저임금 정책으로 노동자는 잔업, 철야, 휴일특근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규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주도의 기업위주 경제발전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빈부의 격차와 물질적인 기준에 의한 계층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은 종교에 대한 보상심리로 작용하면서 대형교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도시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공업중심의 사회, 전문화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되었다. 자연히 계획도시가 발전하게 되었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는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서로 이질감을 가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교회는 낯선 도시생활, 생활환경의 변화, 자녀의 교육과 직장이동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으며 각박하고 메마른 인정과 지역적인 이질감,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난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해소하는 역할과 자기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고 이를 배경으로 대형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4. 박탈보상심리

산업화의 결과로 생겨난 도시화의 배경에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가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었다.[48] 자기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높아진 욕망과 비교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삶에 많은 것이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만과 긴장,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49] 박탈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편법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일도 있었지만 종교적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은 교회가 내건 박탈보상심리를 이용한 가장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조용기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죽은 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 삶의 축복이라고 주장한다. 조용기 목사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요한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구원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 즉 '범사에 잘 되고'라는 말씀을 강조한다. 이 말씀을 '개인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며 '강건하다'는 말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50]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삼박자 축복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부와 권력을 누린다는 주장이다.

---

[48]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236.
[49]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20.
[50] 서광선,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57.

당시 경제적인 불평등에 따른 소득의 불균형에서 오는 박탈감을 한국 개신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을 통해 보상심리를 자극했다. 주로 사회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신앙유형이 형성되었다. 교회는 "절대적 빈곤자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였으며, 삶의 의지를 주었다. 그 결과 대형교회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B. 대형교회 형성의 신학적 배경

한국사회는 1960년대에 4.19 혁명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5.16 군사 쿠데타, 10.26 사태 이후 12. 12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군부의 정치참여 등의 정치적 불안과 이 시기에 있었던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박탈 보상심리 등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양적 급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신학적인 배경이 된 것이 교회 성장이론(학)과 번영신학이다.

1. 교회성장이론(학)

교회 성장이론(학)의 기초와 발전을 이룬 것은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다. 맥가브란은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개종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로 종속운동원리(People Movement), 동질성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 양적 성장 강조(Quantitative Emphasis), 제자화와 완전화(Disciplining and Perfecting), 수용성원

리(Receptivity)등과 같은 교회성장원리들이 생겨났다.[51]

맥가브란의 뒤를 이은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는데 처음 맥가브란의 사상에 비판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맥가브란의 이론에 깊이 동의하게 되었고 맥가브란의 이론을 북미지역에 적용했다.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은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에서 상당히 변형되어 치유사역, 이적과 기사, 영적 전쟁, 능력전도, 세계기도운동, 신사도교회 등의 다양한 현상으로 진행되었다.

a.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교회성장이론

교회가 성장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반대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로 나타난 교회성장이론들이 종족집단의 원리, 동일집단의 원리, 수용성의 원리, 토착교회의 원리들이다. 첫째, 종족 집단의 원리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며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족이며 같은 계급, 씨족, 족속들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기독교화한다는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종족집단을 우선적으로 기독교화 해야 한다고 말한다.[52] 둘째, 동일집단의 원리는 한 집단이 기독교화가 되면 같은 동일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연쇄반응을 통해 기독교화 된다는 것이다.[53] 이 이론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씨족사회로 구성 되기에 가족구성원의 기독교화는 결국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씨족사회의 친척, 그리

---

51 이상만, "질적 성장을 이루는 성장학이 되라," *목회와 신학*, no. 3 (1997): 38-39.

52 Donald McGavran, *The Bridges of GOD 하나님의 선교전략*, trans. 이광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29-33.

53 C. P. Wagner, *Church Growth Strategies 교회성장전략*, trans. 이재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4.

고 동일 지역의 다른 씨족집단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복음화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셋째, 수용성의 원리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집단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미리 조사하여 적절한 선교전략을 계획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는 반면 복음에 대하여 저항적인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54] 맥가브란의 수용성의 원리는 1960-1970년대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동체성의 약화와 파괴, 개인적인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을 긍정적 면으로 볼 때 첫째, 제 3세계의 교회들 스스로 자발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55] 둘째, 교회의 성장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56] 셋째, 교회성장에 대한 선교와 전도의식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57] 넷째, 전도를 위한 교회의 새로운 폭과 이해를 자각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58]

그러나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을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첫째, 성서적 근거이기 보다는 사회학적 근거에서 접근한 전도전략이며 선교방법이었다. 둘째, 교회성장을 숫자를

---

[54]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교회성장이해*, trans. 이요한, 김종일, and 전재욱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87), 180.

[55] 은준관, *교회, 선교, 교육* (서울: 전망사, 1982), 125.

[56] 이종윤, 전호진 and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3), 240.

[57] 이종윤, 전호진 and 나일선, *교회성장론*, 241.

[58] 이종윤, 전호진 and 나일선, *교회성장론*, 242.

통해 교회의 성장여부의 기준을 평가했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 교인의 수, 예산의 규모 등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의 본질보다는 건물 중심으로, 사역에 대해서 양적으로만 평가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 그리고 교회 성장학이 시장 경제 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59]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들은 균형적인 교회성장이기보다는 양적 성장에 대한 편향적인 교회성장을 정당화하게 되는 잘못을 범했다.

b.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의 교회성장이론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의 교회성장이론은 1970년대와 80년대 선교학에 영향을 주었는데 교회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의 특징은 성경에 기초한 신학, 개방적 보수주의 신학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은사중심의 신학을 강조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살아있는 표적 7가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7가지 표적은 '목사, 교인, 교회의 규모, 구조와 기능, 하나의 교회에 대하여, 방법, 우선순위'이다. 이들 모두를 은사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목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60] 둘째, 평신도의 은사를 강조한다.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는 평신도들과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61] 셋째, 교회의 규모, 그리고 넷째, 구조와 기능은 목사의

---

[59] 권상수, 양참삼, and 이만열, *교회성장 이야기* (서울: 기독신문사, 1997), 82-89.

[60]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75.

[61]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99.

목회철학에 달려 있다.[62] 다섯째, 교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된 교회를 말한다.[63] 여섯째, 방법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교회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곱째,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64] 결국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은 이후 성령운동, 치유, 능력사역으로 전개되었는데 한국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예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이에 해당된다. .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목회를 위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목사 자신의 은사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목회철학과 원리,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둘째, 목사 자신의 목회현장을 분석하고 목회와 전도전략을 세우기 위해 다른 학문(문화인류학, 사회학, 통계학,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연관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났다. 넷째, 그의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7가지 원리를 통해 교회성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고 영적 은사를 통한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과 치유사역의 목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령사역에 신학적 기반을 세웠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

[62]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139.

[63]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171.

[64]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213.

째, 그의 교회성장이론은 한국교회의 큰 과제인 "교파분열과 개 교회성장주의"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교회연합의식이 결여되었고 개체교회 중심의 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그가 주장한 교회성장의 원리와 이론을 제시한 교회성장모델이 대형교회였다. 따라서 성공의 표본이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대형교회 지향주의로 흐르는 데 기여했다. 둘째, 교회성장원리와 전략들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가 없었으며 비 성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65]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조장했기 때문에 교회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지역사회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조장하여 교회의 전도사역에 위기를 초래했다.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이론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교인의 질적 성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설명하는 교회성장이론에 불과하다. 교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물량주의가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 개신교회의 대형교회는 교회간의 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약육강식의 논리로, 시장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대형교회를 과시하기 위해 교인 수를 과장하여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교회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교회의 규모, 교인의 수, 예산의 규모를 교회성장의 좋은 모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2. 번영신학

---

[65]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85-89.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은 케논(Essek. William Kenyon, 1867–1948)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후 1970년대 '레마성서 훈련센터'(Rhema Bible Training Center)를 운영하던 미국의 케네스 해긴(Kenneth E. Hagin, 1917~2003)이 케논의 저서에 감동을 받고 번영신학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케네드 코프란드 (Kenneth Copeland), 크레플로 달러(Creflo Dollar), 조이스 메이어(Joyce Meyer), 베니 힌(Benny Hinn), 조엘 오스틴(Joel Osteen), T.D. 제이크스(Bishop T. D. Jakes) 등이 가담하면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66] 이러한 번영신학은 로버트 H. 슐러(Robert H. Schuller), 조엘 오스틴과 베니 힌의 한국 방문과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에 의해 한국교회와 목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많은 목사들은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 번영신학의 목회방법을 교회성장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인 교회성장주의, 개 교회주의, 물량적 성공주의, 자본의 종교화, 물질주의와 맘몬신앙, 비성서적 축복론과 치유행위 등 직간접적으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번영신학을 교회성장을 위해 이용하게 된 이유는 첫째,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에 대한 도피,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불평등에서 오는 박탈보상심리,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회현장의

---

[66] 류장현, "번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no. 61 (2010): 7–30.

요구, 셋째, 교회성장주의 뒤에 숨겨진 목사의 자기욕망 때문이다. 이것은 명예, 교권, 물질적 안정을 원하는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과 물량적 성공주의,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번영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신앙과 신념, 그리고 예수를 부자예수로 이해하게 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 값싼 은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a.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부자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한다.[67]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물질적인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는 성공과 육신의 건강이며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 말한다.[68] 이러한 하나님 이해를 T. D. 제이크스는 더욱 발전 시켰는데 하나님을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모든 재원의 창시자로서 "돈줄의 근원"이며 "모든 부유함의 근원"으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69]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동시에 누

---

[67] Kenneth E. Hagin, *Following God's Plan for Your Life,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trans.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4), 9.

[68] Kenneth E. Hagin, *Following God's Plan for Your Life, 12*

[69] T. D. Jakes, *Loved by God: the Spiritual Wealth of the Believer, 부자하나님의 부자자녀들*, trans. 김유태 (서울: 순전한나드, 2005), 15-16.

리는 최고의 부자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70]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부와 재물을 이 땅에서 소유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상설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 가지 저주(혹은 형벌)를 받게 되는데 "가난, 질병, 그리고 영적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 가지 저주에서 인간을 속량(Redeemed from Poverty, Sickness and Spiritual Death)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71] 다시 말하면,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속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곧 부자가 되는 복, 건강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부와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72] 이러한 번영신학의 복에 대한 개념은 조용기 목사에 의해서 삼박자 구원론 혹은 삼중축복으로 신학화되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73]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상하는 분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면 반드시 돈으로 보답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돈으로

---

[70] T. D. Jakes, *Loved by God: the Spiritual Wealth of the Believer*, 20.

[71] Kenneth E. Hagin, *Redeemed from Poverty, Sickness and Spiritual Death 속량,* trans.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8), 9.

[72] Kenneth E. Hagin, *Healing scriptures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 trans.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4), 12-48 참고.

[73] 국제신학연구원, *오중복음과 삼중구원의 축복* (서울: 서울서적, 1993), 참고.

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십분의 일을 내면 내가 땅 위의 물질적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 말한다.[74] 영적인 축복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바탕은 십일조이며 십일조를 드리는 만큼 재정적으로 더 많은 수입과 부요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한다.[75] 이처럼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자판기 하나님(The Vending Machine God)으로 만들었다. 자판기가 정해진 액수의 돈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물품이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인 것처럼 언제든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는 신이며 인간의 필요와 소원을 항상 들어주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우상으로 만들었다.[76] 결국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이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할 뿐 아니라 현대판 바알과 같은 우상으로 만들었다.

b. 잘못된 신앙과 신념에 대한 이해

신앙을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는 방법을 신앙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힘으로 설명한다. '적극적 사고'나 '긍정의 힘'의 개념은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 로버트 H. 슐러, T.

---

[74] Kenneth E. Hagin, *(The)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마이더스 터치: 성경적 부요함에 관한 균형 잡힌 가르침*, trans.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8), 95.

[75] Kenneth E. Hagin, *(The)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244.

[76] B. W. Anderson, *The Understanding of Old Bible 1 구약성서의 이해 1*, trans. 제석봉 (서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1987), 19-20.

D. 제이크스, 그리고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사고'나 '긍정의 힘'이 자신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의 힘'이란 먼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언어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반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성서구절을 매일 반복해서 외우므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면 그 꿈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77] 번영신학은 적극적 혹은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변화시키면 누구든지 성공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본 원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번영신학은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의 힘'이란 개인이 갖는 신념이지 신앙은 아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신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위해 갖는 자아실현의 방식이다. 신앙이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사는 삶의 원리인 반면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이고

---

[77] Norman Vincent Peale,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trans. 이정빈 (서울: 지성문화사 1994); Robert Schuller,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trans. 장재영 (서울: 태인문화사, 2008); Joel Osteen, *Your Best Life Now 긍정의 힘*, trans. 정성묵 (서울: 두란노, 2005) 참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념은 자신에게 '꿈을 가져라, 자기의 가능성을 믿으라, 목표를 설정하라, 행동하라, 강한 신념을 가지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78] 이것은 일종의 자기최면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신앙의 행위는 아니다.

결국 번영신학이 주장하는 '적극적 사고' 혹은 '긍정의 힘'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신념 혹은 자기최면을 신앙으로 탈바꿈한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생각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고방식의 변화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신앙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보다 자기 자신의 적극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번영신학은 신앙을 적극적 사고 혹은 긍정의 힘으로 변질시켰으며 물질적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c. 부자 예수, 값싼 은총에 대한 이해

번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질적 축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복음이라 주장하며 현세에서 받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은 부와 부요함(Wealth and Prosperity)을 강조하고 교인들이 신앙을 통해 모든 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79] 예수 그리스도는

---

[78] Kenneth E. Hagin, *(The) Real Faith 진짜 믿음,* trans.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7), 36-49.

[79] Kenneth E Hagin,. *(The)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23-

결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며 단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80]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은 그들은 전혀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 예수님의 옷은 군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을 만큼 충분히 좋은 것이었다고 말한다.[81] 번영신학은 역사적 예수를 부자로 만들어 놓고 예수가 부자였던 것처럼 교인도 신앙을 통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번영신학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약자와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당시 교인들에게 신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대형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번영신학은 미국의 물질적 풍요와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신학이며 건강과 부를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신학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번영신학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있다. 번영신학은 신학적으로는 정통주의적 근본주의 신학에 기초하

25.

[80] Kenneth E Hagin,. *(The)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63-65.

[81] Kenneth E. Hagin, *(The) Midas Touch: A A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82-83.

고 성서를 성공과 형통의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신으로 설명하면서 신앙을 축복 받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고 십자가 사건을 개인의 성공과 형통을 위한 사건으로 설명함으로써 교인들에게 기복신앙과 물질적 성공주의가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강조하였다. .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번영신학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며 세상에서 성공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된다고 말한다. 급성장한 대형교회들은 번영신학을 수용함으로써 대형교회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번영신학을 통해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Chapter Ⅳ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를 살펴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닌 교회의 구성원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교회의 의미,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의 기능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구성되는가라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언급하고 둘째, 니케아 신조에서 언급한 교회의 특성인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셋째, 성화신학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성화, 그리고 사회적 개혁과 개혁을 통한 사회적 성화를 통해 교회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는 한국 개신교회뿐 아니라 대형교회에 대한 교회의 의미,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

A. 교회의 이해

존 웨슬리의 교회론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구성된다. 첫째,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영국 국교회의 39개 조항"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을 수용하면서 교회를 구원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 특히 신약성경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며 "모든 진정한 신자들의 총체"라고 말한다.[82] 교회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

[8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45.

강조했다.

둘째,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말한다. 사도행전 5:11을 풀이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전체"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연합된 회중"(congregation)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영적 친교장이며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이다.[83]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모든 사람들로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 만민의 아버지 되시는 한 하나님을 가지고 성령으로 결합된 하나의 몸이다. 셋째, 성도의 교제를 강조했다. 존 웨슬리는 교회가 교회의 일치와 지속성이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Communion of Saints)라는 어떤 형태의 소집단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84] 존 웨슬리는 영국교회가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지만 교인들 개인 사이의 정신적, 인격적 교제를 마련하는 데는 불완전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도의 교제를 위한 터전을 마련할 필요성에 인식하고 소그룹 제도를 도입했다. 소그룹 제도는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배운 것이지만 사실 소그룹의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았다. 초대교회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했다.[85]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개인

---

[83] 허선규, *웨슬레 사상의 현대적 선언* (서울: 보이스사, 1987), 250.

[8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57.

[85] 김영선, "웨슬리 신학과 한국교회 갱신," *in 제1회 한국 웨슬리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999): 62-63.

의 믿음을 성숙시키며 신앙을 성장시키는 성화의 장으로 소그룹을 이해하고 있다. 존 웨슬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성도 개개인이 믿는 자로서의 구원의 경험과 확신, 부름 받은 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곳,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 개인이 성화되고 성화된 개인이 모인 신앙공동체가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다. 결국 교회는 같은 대상을 향한 공동의 믿음을 소유하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의 믿음과 신앙고백, 그리고 부름 받은 자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소그룹을 통해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B. 교회의 특성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가 따랐던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을 그대로 수용했다.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은 381년에 공표된 콘스탄티노플의 니케아 신조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는데 니케아 신조가 고백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은 초대교회의 대표적 교회론이 되었다.[86]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인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그리고 사도성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존재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1.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그리고 한 분 성령님을 섬기며 하나의 믿음, 재림에 대한 하나의

---

[86] 김영선, *존 웨슬리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49.

희망,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이다.[87]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안에 머물고자 했다.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열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교회의 분열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교회의 연속성과 단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고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시 분열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교회의 분열이 교회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교회의 통일성의 문제는 교파 분열이 아니라 각 교회가 가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협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교회들 사이의 차별을 배제한다.

2. 교회의 거룩성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다.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인이 거룩한 것은 그들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은 참된 교인들이 주님의 거룩성에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으며 교인들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 의로움에서 온전한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개념을 거룩함의 누룩처럼 소그룹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

[87] 김영선, *존 웨슬리와 신학*, 349.

다.[88]

결국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이며 교회가 교인들을 거룩하게 할뿐 아니라 개인의 성화에서 사회적 성화로 발전하도록 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통해 거룩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이 거룩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 또한 거룩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존 웨슬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설명하고 있다.[89]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가 세상의 기관과 다른 이유와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3. 교회의 보편성

존 웨슬리는 "교회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나라의 백성들 또한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90] 교회의 보편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체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

---

[88] 김영선, *존 웨슬리와 신학*, 351-52.

[89] 김영선, *존 웨슬리와 신학*, 351-52.

[90] 허선규, *웨슬레 사상의 현대적 선언*, 70-71.

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주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 한다고 보았다.[91] 존 웨슬리가 주장하는 교회의 보편성은 교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4. 교회의 사도성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을 갖게 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부여 받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존 웨슬리는 사도성의 문제를 '인적 계승'이 아니라 '사도적 교훈'의 계승의 시각에서 보았으며 가톨릭교회가 강조하는 사도 베드로 이후의 교황에 의해 사도직이 계승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보았다.[92] 존 웨슬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세세토록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계승자라 할 수 있는 목사와 교사의 계승을 더 중요시하였다. 존 웨슬리는 감독이나 장로의 안수권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사도성의 계승을 인정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제자들이 사도직을 갖게 된 이유는 직접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 사도적 권위의 계승은 불가능하다. 사도직의 계승의 문제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권위의 계승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교파, 교단은 다르지만 하나님에게서 부여 받은 하나된 교회의 통일성,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의 거룩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

[91] 김영선, *존 웨슬리와 신학*, 353.

[92]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265.

은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의미하는 보편성, 그리고 아니라 '사도적 교훈'의 계승의 시각에서 보는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사도직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부여 받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교회의 특성이다.

C. 성화신학

존 웨슬리는 교회의 본질을 제도, 예식, 교권을 교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중 또는 믿는 이들의 모임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자들을 성화의 단계로 훈련시키는 영적 도장이며 개인의 성화가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성화로 나아가는 전초기지의 개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화는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에 있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1. 성화의 개념

'성화'는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와 신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교회는 믿는 자들 개개인의 성화를 통해 교회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 즉 사회적 성화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존 웨슬리의 성화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 데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함을 뜻하는 '성결'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기는 것을 뜻하는 '사랑'이다.[93]

---

[93]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55.

첫째,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란 뜻의 라틴어 상투스(sanctus)와 그리스어 하기오스(Hagios)에서 파생된 말로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이심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94] 유한한 객체가 ‘거룩’하게 되는 행위 또는 과정이 ‘성결’이기 때문에 ‘성결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95] 성결은 존재의 거룩을 말하고 성화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 성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데 최고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96]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존재 자체가 변화된 의인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자신의 삶과 접하는 사회까지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존 웨슬리의 성화는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가족,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까지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성결은 개인이나 교회 존재 자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랑은 존재 자체의 성결에서 더 나아가

---

[94] 박형룡, *박형룡전집:교의신학 구원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8), 331-22.

[95]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225-26.

[96]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9-11.

이웃과 세상을 성화시키는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2. 성화의 과정

존 웨슬리의 성화의 개념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교회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회적 성화를 통해 한국 개신교회 대형교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765년에 발표한 설교인 “성서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를 선행은총, 칭의 전의 회개, 의인과 중생,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영화, 여섯 단계로 구분했다.[97]

[97]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78.

a. 제1단계: 선행은총

존 웨슬리의 구원론은 예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은총의 역사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선행은총이며 선행은총은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데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책임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행은총에 의해 회복됨을 믿었다.[98]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면서 선행은총이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과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유의지적 참여로 나타난다고 했다.[99] 결국 선행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과 그 은총의 수용여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b. 제2단계: 칭의 전의 회개

존 웨슬리는 두 종류의 회개를 말하는데 율법적 회개(Legal Repentance)와 복음적 회개(Evangelical Repentance)이다. 율법적 회개는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에 의해 죄를 철저히 깨닫는 회개로 자연적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복음적 회개는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00] 따라서 칭의 전의 회개는 회개에 대한 고백

---

[98]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88.
[99]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88.
[100]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88.

과 회개에 대한 변화된 행위를 말한다.

c. 제3단계: 칭의, 의인화, 중생 (거듭남)

존 웨슬리는 칭의(의인화)를 두 가지로 말하는 데 하나는 과거의 정화와 죄의 용서,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적에게 고발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다.[101] 존 웨슬리는 믿음의 문제를 통해 칭의를 이해했다. 믿음을 올더스게이트(Alders gate)의 회심 이전에는 지적인 동의로 이해했지만 회심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이해하였다.[102] 따라서 칭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내적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화해되었다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다.

칭의를 통해 이루어진 의인화와 거듭남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데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인화는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해석한다. 거듭남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경험되는 주관적 은총이라면 의인화는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객관적 은총이라고 구분한다.[103] 따라서 의인화는 우리를 위해 우리 밖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것으로 상대적 변화 또는 관계적 변화인

---

[101] Klaiber Walter and Manfred Marquardt, *Gelebte Gnade 감리교회신학*, trans. 조경철 (서울: KMC, 2007), 338-39.

[102] 한국 웨슬리학회, "신생의 표적," *in 웨슬리 설교전집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8.

[103]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94.

반면 거듭남이 우리 내면에서 경험되는 실제적 변화이다.

d. 제4단계: 성화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변화를 받아 거듭나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은총이다.[104] 다시 말하면 선행은총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의지가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거룩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으로 완성되기 위한 내재적 전제가 된다. 이것이 곧 성화의 삶이다. 성화는 순간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것으로 인간의지의 책임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그 결과 신앙 의인화를 전제한 사랑의 성화라고 할 수 있다.[105]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며 선물로 받은 거룩함은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발전하는 사회적 성화로 발전되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개인으로부터 사회로까지 발전되어가야 한다.

e. 제5단계: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리는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말했다[106] 완전한 성화는 자기 안에 남아 있는 죄를

---

[10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09.
[105]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09.
[106] J.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Kansas: Beacon Hill, 1872), 41.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신앙체험이며 이 체험을 '제2의 축복'(Second Blessing), '두 번째 변화'(Second Change),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했다.[107] 린드스트롬(Lindstrom)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인격의 완전'이며 이는 곧 '사랑'이라고 정의한다.[108] 결국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존재적 성화와 사회적인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관계적인 성화까지 말하고 있다.

---

[107]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236.
[108]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224.

f. 제6단계: 영화

영화는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신령한 몸의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온전한 성화에까지 계속 성장하여 영화로 연결된다.[109] 죽음을 넘어 선 이 영화의 은총에서 죄로 인한 모든 흔적, 곧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제약성과 약함, 실수와 무지, 그리고 유혹에서도 해방을 된다고 해석한다.

존 웨슬리의 성화신학은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로 수용하며 개인의 성품의 회개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의인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통해 거듭남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 그리고 개인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성에서의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장 나약함의 상징인 죽음을 넘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는 영화에 까지 설명하고 있다. 결국 성화신학은 하나님의 선행은총으로 시작된 개인의 성화로부터 사회적인 성화로 연결된다. 존 웨슬리의 성화신학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즉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기초로 하여 개인, 신앙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을 성화로 이해했으며 성화가 개인에서 신앙공동체로, 그리고 세상으로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

[109]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20.

Chapter V

대형교회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17세기 개혁주의 교회가 신앙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내세운 슬로건중의 하나는 '교회의 개혁'이었다. 이러한 교회의 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 종교개혁,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영국의 메소디스트운동(Methodist Movement)으로 나타났다.[110] 18세기 영국의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했던 존 웨슬리의 교회의 성화는 무기력해진 당시 영국교회를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방면에 새로워지는 혁신을 가져다주었다.[111]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지 대형교회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대형교회나 중소형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대해 스스로 변화하기를 거부하게 되면서 경직화, 제도화되었고 교단중심의 정치세력화 되고 세속화되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망각한 데에 있다.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문화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인격적인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신앙의 유기체 안에 묶여 있다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믿는 자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실천하여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삶을 통해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거룩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권위가 교회를 통해 계승되고 복음을

---

110 박봉배, *기독교 윤리와 한국 문화* (서울: 성광 문화사, 1983), 687-93 참고

111 Howard A. Snyder, *(The)Problem of Wineskins,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rans. 이강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0-11.

전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임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정당성, 평등성 등과 같은 사회적인 기준에 비추어 교회가 평가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개인의 성화 (영적 회개운동, 거룩성의 회복)

존 웨슬리가 영국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성화를 이루었던 출발점은 존 웨슬리 자신의 분명한 회심체험과 구원의 확신이었다. 존 웨슬리 자신의 개인적인 성화를 통해 영국 국교회와 영국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화의 출발점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으며 죄에 대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12] 1907년에 일어난 한국 개신교회의 부흥운동의 계기는 선교사 하디로부터 시작된 회개였는데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회개에서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실질적인 회개는 없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죄에 대한 회개가 결여되어 있으며 기복신앙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좋은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체험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Nominal Christian)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교회는 자연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11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292.

믿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나가는 삶의 결단이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회개와 행동의 변화를 이루는 회개이다. 회개를 통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복음의 권위의 계승자로서 스스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사도적인 권위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B. 신앙 공동체(교회)의 성화

존 웨슬리는 교회를 제도, 의식, 교권, 신조, 외형 건물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성화되어 가는 자들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로서 참된 믿음은 사랑을 소유한 이들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고 하나님의 자신의 피,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획득한 것으로 정의했다.[113]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화되어 가는 자들의 모임으로 성결, 성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공동체가 가지는 존재가치이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화된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한다. 첫째,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성화에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말은 다수의 대형교회들이 신앙공동체의 성화를

[113]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0-11.

위해서 교인 개개인의 신앙의 목표를 성결이나 성화보다 개인의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해 모인 공동체로 변질되었으며 성화를 이루기 위한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없음의 기준이 되었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가치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성화의 기준이 부귀영화로 일컬어지는 복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영적 성장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신앙공동체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공동체의 안락함과 편안함,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에 몰두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고난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대형교회는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희석되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출세라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인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형교회로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는 현상을 용납하고 있다. 수평 이동 현상은 신앙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신앙공동체의 성화를 이루기 위한 가치 기준은 안락함과 편안함, 양적성장을 위한 전략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교회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신앙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셋째, 죄와 회개, 삶을 통해 성화를 이루기 위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인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특히 오늘날 교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일치한 메시지를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사명자로서 받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보다 고난을 회피하며 희생과 헌신을 거부하고 복을 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원한다. 따라서 대형교회에서 선포되는 대다수의 메시지는 기복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의 핵심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헌신, 희생을 통해 물질뿐 아니라 부귀영화와 출세를 보장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건물의 대형화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내의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계급제도가 사라져야 한다. 이 계급 제도는 하나는 직분의 상하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직분내에서는 직분천거의 먼저와 나중이라는 개념에서 계급화가 이루어진다. 먼저, 직분 상하에서 이루어지는 계급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권사가 자기의 의견이 있어서 장로에게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뿐아니라 못한다. 그것은 장로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장로직분보다 하위에 있는 권사가 상위직분인 장로에 맞선다는 이유로 교회내에서 비판을 퍼붓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직분내에서도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맞선다는 이유로 나중에 직분을 받은 교인들에게 비판을 퍼붓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교회내 직분제도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섬김으로 이해되지 않고 계급제도로 바뀔 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교회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경직화된 조직체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C. 교회의 보편성과 평등성의 회복 (개 교회주의와 교파주의의 극복)

교회의 평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교회는 차별받지 받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동일한 가치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평등성의 문제는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득권 유지,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풍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교회 지향주의에 대한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교회 지향주의에 대한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져야 할 평등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회의 평등성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평등성의 문제는 대형교회가 가지는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교회의 기득권 유지를 제어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회내의 대형교회는 헌금 수입을 통해 금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단이나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교단이나 한국교회내의 기득권과 교권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각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교단장 선거, 감독선거가 금권 선거화 되면서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게 되었다. 교회간의 평등성이 이루어지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금권주의 선거가 사라지게 되며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선출될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둘째, 교회의 평등성은 대형교회들끼리 연합하여 집단적 이기주의와 성공주의를 제어할 수 있다. 집단적 이기주의는 교회 내부에서도 나타나지만 교단안팎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대형교회들의 연합체로 나타나는데 대형교회의 개 교회주의가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중소형교회들은 대형교회 연합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목회에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교단이나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 규모가 작은 중소형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가치가 평가절하될 뿐 아니라 개체교회들 사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연합에 장애가 된다.

교회의 평등성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과 시각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교회의 평등성은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능하게 하며 물질주의에 기초한 기득권 유지,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성공제일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 교회의 사역의 정당성을 통한 거룩성의 회복

교회의 거룩성의 문제는 정당성의 문제의 해결에 있다. 한국 개신교회가 비난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자체로서의 거룩성을 주장하지만 사회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법적인 정당성이 통용되지만 교회가 가지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당성과 도덕적인 정당성이 함께 지켜질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물음을 통해 교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거룩성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정당성의 평가의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이다. 교회의 존재가치의 평가의 대상은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은 신앙공동체와 교회 밖, 세상에 대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정당성의 평가는 사역에 대한 평가이며 교회존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교회는 자체적인 교회의 특수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회 밖의 세상과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성을 평가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비난 받는 이유는 정당성의 기준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편향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기준은 투명성과 도덕성이다. 투명성과 도덕성의 문제는 재정수입의 규모가 큰 대형교회의 재정지출에서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면 교단장이나 감독선거시에 나타나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재정 지출에 있어서 담임목사 임의대로 독단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재정지출의 규모와 목적, 그리고 재정의 사용목적에 있어서 투명성과 도덕성아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기준인 투명성과 도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분명한 사용처 제시와 적절한 금액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사용목적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이것을 기준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하지 못하다는 평가 뒤에는 반드

시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변화이다. 평가를 하는 이유는 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반면 나쁜 영향력도 줄 수 있다. 일부 대형교회의 정당성이 결여된 사역으로 인해 한국 개신교회 모두가 비난 받게 되고 주어진 사명 또한 이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존 웨슬리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닌 사회 속의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열린 신앙 공동체로 기독교를 고립적인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114] 교회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한다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당성을 갖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된다.

E. 사랑의 나눔을 통한 교회의 사도성의 회복

존 웨슬리가 주장한 성화의 핵심은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이며 교회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성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이다.[115] 사랑의 나눔은 단순히 내가 가진 소유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확인 될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기

---

[11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46.

[115]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3.

위해 자기 자신에게서 세상으로 시각을 바꿀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랑의 나눔은 자기 자신에게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사회적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실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은 1/10을 나누어 주고 바리새인은 2/10을 나누어 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116] 신앙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세상에서 소유자로 살아가지 않고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비난 받는 이유는 세상을 위한 나눔에 또 다른 이기주의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교회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이해득실에 따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의 나눔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신앙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결국 주어진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의식을 가질 때 사랑의 나눔을 통해 사도적 계승자로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성화로 이끌게 된다.

F.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신앙공동체

존 웨슬리는 교회와 믿는 자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직접 많은 구제와 선교를 통해 감리교회의 제도적인 기관으로까지 발전해야

---

[116]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6.

한다고 말한다.[117]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는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며 개인의 성화에서 사회적 성화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믿는 자들은 사회적 성화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존 웨슬리는 제도로서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상황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생명력 있는 메시지와 갱신을 제공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차원에서 이해했다.[118] 따라서 존 웨슬리는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개인의 성화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성화로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

교회는 개인의 성화를 위한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곳이다. 또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도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곳이 신앙공동체인 교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117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24-25.

118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158.

Chapter Ⅵ

성화공동체로서 대형교회의 노력과 새로운 교회의 흐름

대형교회가 존 웨슬리의 교회이해와 성화신학을 통해 개인 성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성화, 그리고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한국 개신교회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을 소개하고자 한다.

A. 성화 공동체로서의 대형교회의 노력

1. 개인 성화를 이루려는 노력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개인적인 회심이 영국교회와 영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성화를 강조했다. 개인의 성화 없이 신앙공동체인 교회나 사회적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늘날 개인적 성화를 위해 한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중심으로 한 기도모임이며 주일예배, 수요예배 등을 통한 예배이다. 각 예배와 기도회가 한국 개신교회의 성도들의 영성을 변화시키며 성숙하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되며 사회적인 변화에 부합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 개신교회는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도원이나 수련원을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개인의 영성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성화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Tres Dias 프로그램이 K교회를 중심으로 Golden Tres Dias, H교회를 중심으로 한 경인 Tres Dias, A

교회를 중심으로 한 Nice Meeting,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주관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119] 경기도 양평에서 임영수 목사를 중심으로 모새골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모새골 공동체는 임영수 목사 자신이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하는 구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만든 공동체이다. 임영수 목사가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로 자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곳이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개인의 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의 영성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도구로서 사이버 공간, 인터넷상에 일기를 쓴다.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순간, 혹은 바쁘게 살았던 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자신의 감정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화를 통한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개 교회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

---

[119] 'Tres Dias'란 스페인어로 '3일'이란 뜻으로. 3박 4일간 이루어지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다.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여러 장로교 교단들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Tres Dias는 1949년 1월 7일 스페인의 마요르카(Mallorca)에서 시작된 천주교 평신도 훈련인 꾸르시요(Cursillo)를 미국에서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켜 1972년 11월 2일 미국 뉴버그에서 평신도 훈련을 실시하면서 '트레스 디아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로 '트레스 디아스'는 기독교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자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인이 타인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하도록 자극하고 기독교인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정 모임에서 일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존 웨슬리는 성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화되어 가는 자들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했다. 교회는 성화를 추구하는 믿는 자들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된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120] 존 웨슬리가 말한 사랑을 실천하는 대형교회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C교회의 경우 3주간의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와 사랑의 주일로 지키는 다섯째 주일에는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건축이나 재정 후원이 필요한 교회를 선정하여 사랑의 주일 헌금을 한다.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강원도 내의 미자립 교회를 후원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 둘째, M교회의 경우 2002년, 2003년의 태풍으로 인해서 강원도 내의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건축을 후원하였다. 셋째, P교회의 경우 교도소 제소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도소선교회를 조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평일에는 성경통독을 도움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출소 후의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3.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공동체로서의 노력

존 웨슬리 당시의 사회나 오늘날의 사회나 부익부 빈익빈 사회는 존재한다. 존 웨슬리는 당시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성화에 의해서 촉발되는 사랑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았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 운동을 통해 모아진 것은 회의를 거쳐 필요한 이들에게 배분하였고 1739년 킹스우드에 가난한 광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120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2.

교사와 목사 또는 유능한 평신도들로 하여금 읽기, 쓰기, 계산법 및 기독교 신앙에 대한 수업을 하게 하였다.[121] 존 웨슬리가 말한 나눔의 공동체로서 대형교회들의 노력을 살펴보면 첫째, C교회, B교회의 경우 크리스마스이브가 있는 12월 24일 주간을 사랑의 나눔 주간으로 정하고 성도들이 자원하여 준비한 사랑의 박스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갖는다. 둘째, M교회의 경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재능기부를 하여 작은 관현악단을 구성하여 한 달에 한번 예배반주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콘서트를 마련하여 문화적인 혜택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셋째, W교회, S교회, P교회, A교회, H교회 등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복지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월드비전을 통해 결식노인이나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넷째, S교회의 경우 차상위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을 위해 성도들이 미리 식사비를 후원하여 미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리내 식당이란 사회복지사가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과 후원자를 연결하여 후원자가 식당에 미리 식사비를 지불하면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이 그 음식가격만큼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사회적 성화를 지향하는 신앙공동체

존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를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으로 이해했다. 예를 들면 존 웨슬리는 1770년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노예해방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요구와

---

[121]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5.

운동, 그리고 여성들을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여 평신도 설교자로 발탁했다.[122] 존 웨슬리는 지난 시대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상황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생명력 있는 메시지와 갱신을 제공하는 곳이 교회라고 이해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이유를 세상에서의 활동과 기능과 사명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123] 따라서 신앙공동체 자체로 교회의 존재적 가치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적 성화의 핵심은 인간의 본질적 존재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치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람의 직업과 삶의 질적인 외적 환경에 의해서 평가 되지 않고 인간 존재 자체로 존엄성이 평가되는 사회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되는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개신교회와 교단 내에서 존재하는 남녀의 차별구조의 변화이다. 감리교단의 경우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고 목회적인 동반자의 역할로서 개교회안에서 여성 목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목회사역을 하고 있다. 목사 안수의 문제는 사역과 사명의 문제이지 남성, 여성의 성적 문제가 아니다. 남녀 성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신앙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둘째,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과 한국에 태어난 2세들에 대한 차별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차별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데 하나는 직업,

---

[12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6.

[123]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158.

학업 때문에 이주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서 피부, 인종, 언어, 혈통, 문화,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진다. 소위 출신지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따라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을 통해 태어난 2세에 대한 차별이다. 결혼 등을 통해서 태어난 세대는 한국사회의 문화구조에 적응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해 다문화센터를 C교회가 운영하고 한국에 유학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돕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교회에서 가정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교회가 자원봉사를 위한 인적자원 동원과 후원,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 공조하여 홍보와 계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독사이다. 한국사회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보험료에는 요양보험료가 추가 징수되고 있다. 이 말은 한국 사회는 자녀가 부모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세대가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뿐 아니라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고독사를 막기 위해 S교회는 소그룹에 독거노인을 포함시켜 예배와 신앙을 통해 돌봄의 사역, 그리고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역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자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살은 자신의 생의 존재이유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자기 생의 포기이며 개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회피이다. A교회의 경우 인간의 생의 가치, 삶의 목적과 의미부여를 통해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관과 함께 걷기 대회를 열어 자살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몽에 힘쓰고 있다

B. 한국 개신교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

앞서 언급한 대형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개신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새로운 교회의 흐름은 개인, 교회 그리고 각 한국 개신교회의 기관들의 연합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성화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새로운 교회의 흐름의 방향성과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연합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 삶을 회복하는 범 기독교적인 운동이다. 진보 성향의 기독교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주 목사는 지난 2012년부터 '생명밥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주 총무는 생명밥상운동을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다른 생명을 무분별하게 해쳐 온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또한 홈리스(노숙인)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124]

---

[124] 신동주, "사회가 교회 걱정하는 일 안타까워," *세계일보*, January 12, 2012.

둘째, 목회적 관심의 대상이 도시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도시 이외의 농어촌지역에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목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성화되어가는 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송악교회 이종명 목사는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유기농법이라는 친환경농법 시행을 장려하고 새로운 농촌문화를 만들어왔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농촌의 부모에게 떠맡겨진 어린이들을 돌봤다.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 위해 노력했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잊고 있던 땅의 소중함,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함께 사는 세상 등에 대한 원칙과 가치들을 되살려 놓고자 했다.[125]

셋째, 기독교 NGO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태학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에 취임한 청지기교회 이진형 목사는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생태계 창조질서 보존하는 녹색교회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아파트 상가에 있던 청지기교회를 숲 속으로 옮긴 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 이진형 목사는 "처음에 숲 속으로 교회를 옮기니 오가는 길이 불편하다는 불평도 있었지만 3년 정도 지나니까 예배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1/12/20120112004778.html (Accessed February 12, 2017).

[125] 전재우, "생명 살리는 농업이 창조질서 회복의 길," *국민일보*, November 11, 20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225076 (Accessed February 12, 2017).

때 대표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교회 오는 길에 마주한 벚꽃, 낙엽 등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연과 달리 욕심 부리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기도하는 분도 있었다."고 말한다. 이 목사는 "녹색교회의 핵심은 생태적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창조질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기후변화나 사용 후 핵연료 문제, 생명밥상운동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환경적 이슈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것으로부터도 녹색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126] 넷째, 학문적 기반을 제시하는 신학대학교와 실천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해야 한다. 지난 2016년 10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성장제일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2016 작은교회 박람회'가 80여개 교회와 20여개 개신교계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작은교회운동은 성장 위주의 대형교회와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기독교로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2018년 3·1운동 100주년 등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역사적 지점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겠다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현실에 맞는 '시대 거역적인 도전'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운동이다. 이정배 교수는 "작은교회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탈(脫)성장', '탈성직', 그리고 '탈성별'이다.[127] 첫째, 탈성

---

[126] 김나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새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 녹색교회 핵심은 생태계 창조질서 보존하는 것," *국민일보*, March 20,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7376&code=23111111&cp=nv (Accessed February 12, 2017).

[127] 김희연,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 작은교회, 자본주의에 물든 교단에 대한 저항," *국민일보*,

장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탈성직은 성직주의에서 벗어나 목사가 평신도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탈성별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성차별주의도 문제다. 이러한 가치관 아래 '평신도의 성', '여성의 성의 가치(가부장적 가치가 아닌)'를 회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다.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작은교회'다. 작은교회는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양하되 유기적이며 가난하되 모두를 품고 세상을 위해 세상에 저항하는 교회다."라고 말한다. 또한 작은교회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활동가, 평신도들이 서로 동질감을 갖고 격려하게 되었다. 목회자가 되려는 신학생들에게 지향해야 할 교회모습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크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형교회와 달리 이런 작은교회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곁에 있었다.[128] 작은교회운동을 새로운 기독교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September 25, 20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52129005&code=960206 (Accessed February 12, 2017).

[128] 세월호 사건이후에 나타난 학술자료들과 신학에 대한 설명이다. 2015년 4월 11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주최로 열린 '2015년 학술대회'에서 '세월호 이후의 신학과 윤리'를 주제로 발제에서 이동춘(장신대)은'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에서 본 회퍼의 '타자 신학'에 의거하여 세월호 참사를 대해 온 한국교회의 태도 중 옳지 않은 태도 '3가지 죄'를 언급, 첫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기성의 죄', 둘째, 신정론으로 치부하려는 '책임전가의 죄', 그리고 셋째, 무력함을 핑계 삼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죄' (침묵죄). 이병왕, "세월호 참사 관련 – 한국교회의 죄' 3가지는 무엇?", *뉴스앤넷*, April 14, 2015.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 (Accessed March 8, 2017).

희망이다."라 말한다.[129] 작은교회운동은 대형교회에 가치를 둔 한국 개신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교회운동이 될 것이다. 작은교

"말할 수 없는 탄식: 애도에 대한 신학적 해석" 주제로 열린 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 교수세미나에서 김재성은(한신대) "사회적 결핍과 교회의 탄식", 류장현(한신대)은 "민중의 한과 탄식, 그 원인과 극복", 그리고 권명수(한신대)는 "애도의 공동체적 접근"으로 설명했다.
이수민, "세월호 1년, 사회적 슬픔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킬까", *기독일보*, May 27, 2015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5%9C%EC%8B%A0%EB%8C%80-%EC%84%B8%EC%9B%94%ED%98%B8-%EA%B5%90%EC%88%98%EC%84%B8%EB%AF%B8%EB%82%98-58444.html (Accessed March 8, 2017).
세월호 참사 이후 신학자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신학이 달라져야 한다.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서남동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만난 사람을 고난받는 민중으로 생각하고, 그가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 이정배 교수(감신대 종교철학)는 세월호 참사를 아우슈비츠 사건에 유비해 정치적 파시즘의 그늘이 우리 사회에 가득 드리운 현실', 가톨릭 신학자 김혜경 교수(대구가톨릭대 인성교육원)는 국가적인 참사조차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상에 대한 고민에서 정치지향성을 분석했다. 고수봉, "세월호 이후 신학에 대한 신학자들의 답변", *에큐메니안*, Apirl 29. 2015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3 (Accessed March 8, 2017).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역사에 고통스러운 이정표로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타인의 삶과 고통에 무관심해 왔으며 타인의 희생을 딛고도 자수성가하여 얻었다고 믿는 지위와 위치에 기대어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 자기성찰, 순진한 종교심을 기복신앙으로, 경쟁과 속도속에서 살아온 한국 사회를 비판 하고 불법과 편법을 삶의 지혜로 예찬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자성이다라고 평가한다. 주낙현, '세월호 이후의 신학과복음', May 16, 2014.
https://medium.com/@viamedia/%EC%84%B8%EC%9B%94%ED%98%B8-%EC%9D%B4%ED%9B%84%EC%9D%98-%EC%8B%A0%ED%95%99%EA%B3%BC-%EB%B3%B5%EC%9D%8C-24048e1bdfd1#.xfno6u4bl (Accessed March 10, 2017).
세월호 신학은 디트리히 본회퍼의 '십자가 신학'이나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처럼 당대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경험하는 현실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으로'신앙본질 전환의 결단'과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세월호 신학이 형성되고 있다. 신상목, 김나래, "세월호 신학 태동", 국민일보 Apirl 14,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464&code=23111213&sid1=min (Accessed March 9, 2017).

[129] 김희연,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 작은교회, 자본주의에 물든 교단에 대한 저항," *국민일보*, September 25, 20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52129005&code=960206 (Accessed February 12, 2017).

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면 서울의 동네 작은교회의 김종일 목사는 교인이 30명을 넘어서면 교회를 '분가'시킨다. 경기 부천의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는 교회 건물을 마을에 내놓아 마을공동체를 위해 쓴다. 강승욱 목사는 힘들게 번 노동자들의 헌금을 받을 수 없다며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짓고 금요일 밤 서울로 올라와 예배를 드린다. 이처럼 작은교회운동은 목사 개인과 교회에 자기성찰과 갱신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 개신교회에서 한국의 분단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통해 사회적 성화를 더욱 더 확장해야 한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나그네 돌봄 사역, 대북 협력지원, 그리고 탈북난민 사역을 하고 있다. 나그네 돌봄 사역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 사역으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탈북민에게 남성 및 여성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대북협력지원 사역으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교회, 기독교NGO 등과 협력해 식량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제3국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 보호 및 구출 등 탈북난민사역을 하고 있다.[130]

이처럼 교회는 지역사회와 나라, 그리고 분단이라는 특별한 상황 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이전에 영향을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교회는 개인의 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를 사회적 성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

[130] 김아영, "탈북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국민일보*, February 8, 2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0403&code=23111113&sid1=chr (Accessed February 12, 2017).

것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

Chapter Ⅶ

결 론

한국의 1970-80년대는 정치적으로 군사정권 시대,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대였다. 종교적으로는 황금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모든 종교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에 한국 개신교에서 대형교회가 출현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한국정치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 한국교회 역시 저성장 단계를 지나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한국 개신교회에 있어서 혼란기라고 말할 수 있다. “대형교회가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대형교회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새롭게 진화, 변화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에 의해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후발대형교회들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거 흡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교회로 급성장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 개신교회에서 대형교회의 출현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0-70년대 영락교회, 충현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시작으로, 80년대에는 광림교회, 금란교회, 숭의감리교회, 소망교회, 사랑의교회, 주안장로교회가 소위 선발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후발 대형교회는 1990년대부터 등장한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높은뜻숭의교회, 삼일교회 등이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분당우리교회가 대표적인 후

발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다.[131] 후발대형교회들은 IMF이후 신자유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하나의 경제 이념으로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서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132] 무한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들은 자기관리와 자기계발을 우선시하게 되고 무한경쟁에서 오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청부론과 고지론을 제시하고 있다.[133] 후발대형교회들은 전통적인 예배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열린예배, 구도자예배, 각종 드라마와 영상기술)를 도입하고 있다.[134] 교회 조직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인 셀, 목장, 제자양육 등의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원리나 개념들이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셀이나 목장은 대형

---

131 이진구, "대형교회에 대한 몇가지 단상,"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Apirl 25, 2008. http://www.kirc.or.kr/hermeneut/hermeneut_02.php?mode=view&tblname=BBS_20&page=2&seqid=108 (Accessed March 9, 2017).

132 이진구, "대형교회에 대한 몇가지 단상,"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Apirl 25, 2008. http://www.kirc.or.kr/hermeneut/hermeneut_02.php?mode=view&tblname=BBS_20&page=2&seqid=108 (Accessed March 9, 2017).

133 '청부론'이란 부 자체는 기독교인이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가난도 결코 미덕이 아니다. 떳떳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선한 목적을 위해 쓰는 '깨끗한 부자' 즉 '청부'(淸富)야말로 오히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델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고지론'은 기독교인들이 '고지'(高地)를 점령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고지'는 사회의 상층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고지론'은 청년 기독교인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로 대거 진출하여 이 사회를 기독교적 가치와 덕목으로 다스리자는 논리이다.

134 '열린 예배'의 특성은 교인과 비교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개방성과 이벤트성이다. '구도자예배'(seeker's service)는 교회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나 '불신자'를 위해서 마련한 별도의 주일 예배로서 전통적인 찬송가나 악기 대신에 최신의 음악과와 영상, 악기가 연주된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 연출자의 일사불란한 지휘 하에 각종 드라마나 연극, 영화 등이 공연되기도 한다.

교회의 최하부에 있는 소모임으로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에 근거하여 조직된다. 이 소모임은 대형교회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친교공동체 기능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의 전초기지 역할도 한다. 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함으로써 교회의 기반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 후발대형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공학 부류의 설교, 이벤트 예배, 셀교회 등은 대부분 미국의 대형교회인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의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와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 등을 벤치마킹한 것들이다. 최근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대형교회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미국교회를 닮아가는 미국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형교회의 진화와 변화 속에서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흐름이 개인, 교회, 그리고 사회적 성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개인, 교회 그리고 각 개신교회의 기관들의 연합이 시작되었고 둘째, 도시 이외의 농어촌지역에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목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성화되어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개인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환경과 생태학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며 넷째, 학문적 기반을 제시하는 신학대학교와 실천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작은교회운동과 같은 새로운 흐름이다. 다섯째, 한국 개신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한국의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통해 사회적 성화를 더욱 더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 개신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형교회 역시 진화와 변화를 거쳐 후발대형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형교회지향주의에서 벗어나 작은교회운동과 개인, 교회, 한국 개신교회의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는 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내의 대형교회는 시대적 변화 앞에서 자기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첫째, 대형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해야 한다. 교회의 규모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으며 교회 성공의 척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형교회가 중소형교회보다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형교회들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교회의 규모에 맞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해비타트 운동,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활동, 해외 이주민 중심의 다문화 사역,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구성, 자살에 대한 캠페인 등 인적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보다 큰 일에 대형교회가 가진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형교회에게 주신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대형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과 자각이 이루어지고 실천에 옮겨질 때 란국 개신교회 안에서 대형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들과의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개인, 교회 지역사회의 성화

가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의 성화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존 웨슬리의 성화 신학 역시 개인에서 시작한다. 개체 교회만의 노력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성화를 이룰 수 없다. 한국 개신교회의 각 기관과 교회가 서로 연합할 때 사회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신학대학교, 다양한 자료 및 훈련 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대형교회와 지역교회들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지원사역,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한 특정한 사역들을 위한 교회들의 허브(hub) 역할,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에 관련된 훈련과 개발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대형교회뿐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이미지(image)의 쇄신이 필요하다. 불교와 카톨릭은 조용한 영성을 추구하는 반면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데 그 이유는 많은 사역이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사역이 활발할수록 더욱 많이 노출될 뿐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개신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단 신앙이나 일부 대형교회들의 부도덕성이 대중매체에 노출되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우가 많다. 교회의 사역과 각종의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나친 홍보나 광고를 지양하고 교회의 자기 변화를 통해 사회를 성화시키는 동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135]

---

[135] 주님의교회는 교회건물이 없이 강당(정신여고)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담임목사(10년)와 장로(7년)의 1회 임기제를 교회 재정의 절반은 교회 내부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한다. 오륜교회는 국내외의 수백 개 형제 교회가 매년 11월 동시에 참여하는 “세이레(21

결론적으로 한국 개신교회에 존재하는 대형교회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형교회들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개인과 교회, 사회적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대형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나는 강원도 태백의 교인 3명이 모이는 아주 작은 탄광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8백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중형 교회, 그리고 지금은 출석인원 3천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기까지 한국 개신교회의 소형, 중형,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 왔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D. Min 과정을 통해 내가 추구했던 것 역시 통찰력(Insight)이다. 교회의 존재가치와 목적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 성화공동체가 되기 위한 대형교회에 대한 연구는 '의식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마음의 문제가 현실이 되고 현실의 일들이 현상이 되어 교회가 가진 본질과 정체성, 지역사회 속에 공존하면서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의식의 변화 없이 시대의 변화를 맞이한다면 자기 도태가 될 뿐 아니라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교회 역시

일간)기도회"를 실시하는 있으며 분당우리교회는 미셔널처치(missional church)의 목표 아래 "1만 성도 파송운동" 전개하면서 초대형교회로서 스스로 사이즈를 축소하는 운동(Slimming) 전개, 교회 재산 무소유운동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거룩한빛 광성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평신도중심 교회 실현, 지역 내 소교회들 중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인수하며 현 담임목사가 조기 은퇴를 하면서 교회를 4개 정도로 분할할 계획에 있다.

예외일 수 없다. 목사와 교인들의 의식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 '성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다. 어디에서부터 변화할 것인가? 그것은 개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변화가 개인이 모인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로까지 확장될 때 변화, 성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개신교회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신 신앙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개인과 교회, 기독교 단체가 기득권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세속화 되어가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권상수. 양참삼, and 이만열. *교회성장 이야기.* 서울: 기독신문사, 1997.

김금수. *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서울: 풀빛, 1986.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______. *존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김홍기. *존 웨슬리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흥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_____.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박봉배. *기독교 윤리와 한국 문화.* 서울: 성광 문화사, 1983.

박영신.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7.

서광선.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서울: 대화출판사, 1981.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부천: 도서출판 정연, 2009.

_____. *메가처치를 넘어서.* 서울: 포이에마, 2015.

은준관. *교회, 선교, 교육.* 서울: 전망사, 1982.

이대근. *한국경제발전사.* 파주: 나남출판사, 2005.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전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______.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______.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종윤. 전호진 and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3.

이희대. *희대의 소망.* 서울: 두란노, 2007.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허선규. *웨슬레 사상의 현대적 선언.* 서울: 보이스사, 1987.

국제신학연구원. *오중복음과 삼중구원의 축복.* 서울: 서울서적, 1993.

〈번역서〉

Wagner, C. Peter. *Church Growth Strategies 교회성장전략.* Translated by 이재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______________. *Your Church can Grow 교회성장원리: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Translated by 권달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Wagner, C. Peter, Gordon MacDonald, Wayne Jacobsen, Vernon C. Grounds, and Paul Tournier. *숫자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를 합시다.* Translated by 배응준.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6.

McGavran, Donald. *The Bridges of GOD, 하나님의 선교전략.* Translated by 이광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________________.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교회성장이해.* Translated by 이요한, 김종일, and 전재욱.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87.

Snyder, Howard A. *(The) Problem of Wineskins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ranslated by 이강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Norman V. Peale.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Translated by 이정빈. 서울: 지성문화사, 2007.

Schuller, Robert.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Translated by 장재영 서울: 태인문화사, 2008.

Osteen, Joel. *Your Best Life Now 긍정의 힘*. Translated by 정성묵. 서울: 두란노, 2005.

Wesley, J.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Kansas: Beacon Hill, 1872.

Hagin, Kenneth E. *(The)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마이더스 터치: 성경적 부요함에 관한 균형 잡힌 가르침*. Translated by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8.

________. *Following God's Plan for Your Life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Translated by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4.

________. *(The) Real Faith 진짜 믿음.* Translated by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7.

________. *Redeemed from Poverty, Sickness and Spiritual Death 속량.*

Translated by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8.

________. *Healing Scriptures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 Translated by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4.

________. *(The)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마이더스 터치: 성경적 부요함에 관한 균형 잡힌 가르침*. Translated by 김진호.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8.

Osteen, Joel. *Your Best Life Now 긍정의 힘*. Translated by 정성묵. 서울: 두란노, 2005.

Anderson, B. W. *The Understanding of Old Bible 1 구약성서의 이해1.* Translated by 제석봉. 서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1987.

Jakes, T. D. *Loved by God: The Spiritual Wealth of the Believer 부자하나님의 부자자녀들.* Translated by 김유태. 서울: 순전한나드, 2005.

Walter, Klaiber and Manfred Marquardt, *Gelebte Gnade 감리교회신학.* Translated by 조경철. 서울: KMC, 2007.

〈논문〉

김영선. "웨슬리 신학과 한국교회 갱신." In *제1회 한국 웨슬리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999): 60-67.

류장현. "번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no. 61 (2010): 7-30.

신경규. "한국교회의 문제와 과제: 장기적 교회성장을 위하여." *개혁주의 교회성장* no. 3 (2008): 210-19.

이상만. "질적 성장을 이루는 성장학이 되라." *목회와 신학* no. 3 (1997): 32-45.

이요한. "새롭게 본 한국교회 성장요인 분석." *목회와 신학* no. 7 (1993): 50-60.

이중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탐구* no. 2 (1994): 110-25.

이진구. "개신교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당대비편* no. 12 (2000): 230-56.

이혁배. "한국교회의 형태와 전망, 그리고 과제." 신학사상 no. 146 (2009): 120-45.

정용암. "한국교회의 문제점 이해와 교회 개척자의 개척준비에 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no. 3 (2006): 3-10.

한국웨슬리학회. "신생의 표적." In *웨슬리 설교전집* no. 2 (2006): 12-18.

〈Web Site〉

박찬호. "10년간 개신교 통계분석." *일요서울*, August 21, 2015.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96 (Accessed May16, 2016).

Doopedia 백과사전. "산업화의 정의, 생산활동의 분업화와 기계화로 2차·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7357 (Accessed Feburary 15, 2017).

Doopedia 백과사전. "도시화의 정의,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형태이며, 사회적 ·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82128 (Accessed Feburary 15, 2017).

신동주. "사회가 교회 걱정하는 일 안타까워." *세계일보*, January 12, 201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1/12/20120112004778.html (Accessed Feburary 12, 2017).

전재우. "생명 살리는 농업이 창조질서 회복의 길." *국민일보*, November 11, 20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225076 (Accessed Feburary 12, 2017).

김나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새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 녹색교회 핵심은 생태계 창조질서 보존하는 것." *국민일보*, March 20,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7376&code=23111111&cp=nv (Accessed Feburary 12, 2017).

김희연.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 작은교회, 자본주의에 물든 교단에 대한 저항." *경향신문*, September 25, 20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52129005&code=960206 (Accessed Feburary 12, 2017).

김아영. "탈북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국민일보*, February 8, 2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0403&code=23111113&sid1=chr (Accessed Feburary 12, 2017).